



감사한인교회(구봉주 목사)는 박신일 목사 (그레이스한인교회)초청 창립 43주년 기념 부흥성회를 개최했다. 부흥성회 둘째 날인 14일 오전 예배에서 박신일 목사는 예수께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 앞에 물위를 걸어오신 장면을 통해, 인생이라는 바다를 어떻게 건너야 하는지 설교했다. (관련 기사 4면)

## 사고

### 침체된 교회 살리는 소그룹 목회 세미나

본지는 오는 3월 23일(월) 오전 10시-오후 2시까지 월드미션대학교(500 Shatto Pl, Los Angeles)에서 '소그룹 사역 세미나'를 월드미션대학교 소그룹사역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지역 교회를 돕고 건강한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지역교회 활성화를 위한 소그룹 사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소그룹 사역의 실제적인 목회 전략 및 소그룹 목회 모델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세미나에 참석한 교회들을 대상으로 15개 교회를 선정해 각 교회에 3천 달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프로그램 참가를 원하는 교회는 세미나 당일 신청서 작성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한 교회 가운데 15교회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나성북교회 유경재 목사와 올림픽장로교회 이수호 목사가 강사로 섭니다. 성경 중심 소그룹 목회를 강조해 온 유경재 목사는 평신도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해석하며 적용하는 소그룹 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이수호 목사는 소그룹이 초대교회 부흥의 출발점이었다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실천하는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담임목사와 목회자, 교회 리더 및 소그룹 리더를 대상으로 하며 등록비는 무료입니다.

참가 신청: QR 코드  
 문의: 213-434-1170, chdaily-la@gmail.com



## 시로 인한 변화 속 교회의 길을 모색하다

AI 설교 연구소, GBC 공동 주최 '세상을 섬기는 설교와 AI' 송병주 목사, "시대의 변화 읽는 리더, 교회의 길 제시"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 CPU 부설 AI 설교연구소(AI Preaching Institute, 공동대표 이상명 총장, 송병주 목사)가 미주복음방송(GBC, 사장 이영선 목사)과 함께 지난 3월 10일(화) '세상을 섬기는 설교와 AI'라는 주제로 첫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LA, 미주, 세계 각지에서 현장과 온라인으로 통해 총 70명이 참석해 AI시대 설교의 방향과 실천적 방안을 모색했다.

공동대표인 이상명 CPU 총장의 영상 인사말에 이어, 송병주 목사(선한정지교회)가 '시세를 아

는 형제'(대상 12:32)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송 목사는 "혁신은 당시에는 불편하고 부정확한 것으로 치부되기도 했으나, 결국 전통으로 자리 잡은 것이 역사"라며, "이 시대의 변화를 읽는 리더, 시세를 아는 형제들의 리더십을 통해 교회가 길을 찾기 바란다"며 AI 설교 연구소의 비전을 나누었다.

첫 번째 강의에서 풀러신학대학원 김창환 학장은 지혜문학의 공격 해석과 설교를 다루며 "지혜서는 세상과 교회를 연결하는 설교의 가교"라는 점을 강조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풀러튼에 위치한 원라이프시터치의 엘리엇 정 목사와 제이 우 목사가 작은 지역교회가 풀러튼 교육구의 파트너가 되어 섬기게 된 이야기를 나누었다.

세 번째 강의에서 조요셉 박사(LC Lab CEO)는 성경을 깊이 있게 통찰하는 귀납적 연구에 AI 프롬프트 기술을 접목하는 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설교 준비에 최적화된 AI 활용 노하우를 전수하며, 그가 개발한 AI 성경연구 플랫폼을 통해 미래형 성경 연구의 청사진을 그려냈다.

이세영 소장(AI Preaching Institute Head Director)은 "무엇을 위해 AI를 사용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국제기구와 기업, 학교들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를 활용하는 사례들을 소개했다.

송병주 공동대표, 이세영 소장, 조요셉 박사가 함께한 마지막 패널 토론에서는 설교와 설교준비의 원칙, AI 사용에 있어서 표절의 경계, AI의 윤리적 사용에 대

한 규제 등 다양한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AI 설교연구소는 4월에는 미주복음방송 공개홀에서 '청년 설교와 사역 멘토링' 세미나를 개최하고 5월에는 AI 방송 아카데미에서 유명 유튜버를 통한 알고리즘 이해와 방송 기획, 전문 방송인을 통한 촬영 기초와 AI를 활용한 영상 제작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AI Preaching Institute는 AI시대 설교의 신학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음세대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설교자를 양성하며, 연구·교육·미디어를 통합한 실천적 모델을 확산하여 글로벌 교회를 섬기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AI 설교연구소: cpuai.org  
 김민선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시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링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관한 스트라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태양광, 솔라!!**  
 2026년 대박  
 ☑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 연방 ITC: 30% 이상  
 ☑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6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 교회는 공사비의 40%까지 인센티브 가능(Direct IRS)  
**BTS SOLAR DESIGN 213.500.8000**

지역교회 활성화를 위한 소그룹 사역 프로젝트

**소그룹**

**교회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라!**

공동주최: 기독일보, 월드미션대학교 소그룹사역센터

**세미나 참석교회 특전**

- 15개교회 선정 후 \$3,000 지원
- 목회현장 소그룹 노하우 공유
- 소그룹 리더 훈련 지원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소그룹!**

침체된 교회를 다시 움직이게 한 실제 목회 현장의 **전략!**

지금, 교회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십시오!

강사: 유경재 목사 (성북부교회 담임)  
**소그룹 중심 목회사역의 실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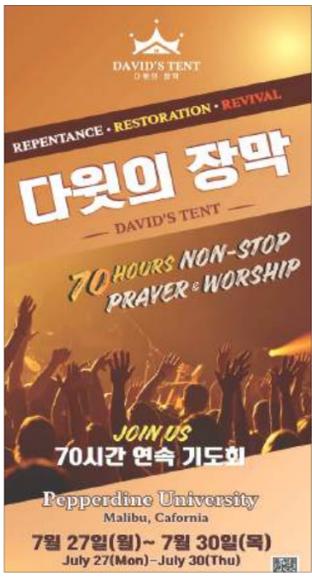
강사: 이수호 목사 (올림픽장로교회 담임)  
**말씀중심 소그룹 구조와 실제적용 사례**

유경재 목사 이수호 목사

**2026.3.23(월) 오전 10시~오후 2시**

- 장 소: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 대상: 담임목사, 목사, 소그룹 리더
- 등록비: 무료, 점심제공, QR 코드 스캔 후 등록
- 문의: 전화번호 213-434-1170

무료공개세미나  
 지금 등록하세요



# 페퍼다인 대학교서 70시간 연속 기도회 열린다

### 다윗의 장막 70시간 연속 기도회 7월 27-30일(월-목)

남가주 교회들과 선교단체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를 올려드리는 <다윗의 장막 70시간 연속 기도회>가 오는 7월 27일-30일까지 말리부에 위치한 페퍼다인 대학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기도회는 70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이어지는 예배와 중보기도를 통해 교회와 열방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연합 기도운동으로,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를 중심으로 준비되고 있다.

행사는 페퍼다인 대학교 캠퍼스 내 엘킨스 강당(Elkins Auditorium)에서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캠퍼스 기숙사에 머물며 함께 예배와 기도회 참여하게 된다.

현재 180여 명이 등록을 마쳤으며, 약 350명 규모의 수용인원을 확

대하려 한다.

이번 기도회에는 남가주 지역 교회들과 선교단체 등 약 20여 개 이상의 단체들이 참여하거나 협력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미주복음방송, CABC, 굿네이버스, 기독교한국침례회 해외선교회(FMB 회장 주호민 목사), Soon Movement, 모퉁이돌선교회, 레비스탕스, SF새누리교회, 뉴욕모자이크교회, 토렌스조은교회, 더크로스처치, 아름다운교회, Seed 선교회, 기독교일보, TCC NJ, 월드미션대학교, 미주성결대학교,

오렌지가나안교회, 세계등대교회, Kalam Japan 등이 협력 혹은 동참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동참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Youth 프로그램과 영어권(EM) 프로그램도 함께 준비된다.

등록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웹사이트: [www.70pray.com](http://www.70pray.com)  
일시: 7월 27일(월) 오후 2시 ~ 7월 30일(목) 정오  
장소: 페퍼다인 대학교

#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미디어 선교, Lighthouse Studio 후원의 밤

### 작은교회 위한 반주 영상 제작 멕시코 전역 300여 교회 예배 장비 수리 사업

미디어를 통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선교 단체 'Lighthouse Studio(라이트하우스 스튜디오, 대표 김도일 목사)'가 지난 13일 저녁 7시, 세계등대교회 본당에서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단체의 핵심 정체성인 'M514(마태복음 5: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의 사명을 재확인했다.

Lighthouse Studio를 이끄는 김도일 목사는 지난 6년의 사역 여정을 나누며, “오늘 이 자리는 함께 땀 흘린 스텝들과 사역의 열매를 목격하는 이들의 고백을 통해 사역의 이유를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라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연합하고, 선교·교육·예배라는 세 가지 사명을 향해 멈추지 않고 달려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미디어를 통해 멈춰 있던 예배가 다시 이어지는 현장의 이야기들로 채워졌다. M514 프로젝트 반주자 윤효진 자매는 “곡을 깊이 묵상하며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신앙이 더욱 깊어지는 은혜를 경험했다”고 고백했다. 이어 그가 연주한 영상이 한국의 작은 교회와 세계 곳곳의 예배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을 느꼈다고 전했다.

설교를 맡은 권도근 목사(나들목비전교회)는 마태복음 5장 14절의 ‘산 위의 동네’ 비유를 통해 사역의 의미를 전했다. 그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은 거대한 햇불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손해보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며, 각각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세상의 빛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남가주말일선교단 이종희 목사는 “장애인 사역 현장이 Lighthouse Studio의 영상을 통해, 그



Lighthouse Studio 후원의 밤 © Lighthouse Studio 제공

감동이 시공간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위로로 전달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김성렬 집사는 티와나와 엔세데

나 등 멕시코 전역 300여 교회를 돌며 예배 장비를 수리해 온 사역을 소개하며, 한 판자촌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전했다.

“스피커 잭이 완전히 파손된 상황이었는데, 제 톨박스 안에 제가 준비하지도 않은 꼭 맞는 부품이 들어 있었다”며, “그 부품으로 수리를 마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계속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신 것으로 믿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ATI 신학교 이창남 목사는 “Lighthouse Studio는 미디어를 통해 세상과 복음을 연결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영상 제작 교육이 예비 사역자들에게 실제적인 사역의 도구가 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Lighthouse Studio는 2026년 멕시코 현지 교회 지원과 미디어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사역을 이어갈 계획이다. 사역 참여 및 후원은 체크(Pay to: Lighthouse Studio, 1479 E. Broadway, Glendale, CA) 또는 젤(Zelle: [light-housestudio91@gmail.com](mailto:light-housestudio91@gmail.com))을 통해 가능하다. 김민선 기자

## 주사랑 여성 합창단 제3회 정기 연주회

월드쉐어 USA 주사랑 여성 합창단(단장 강태광 목사, 지휘 문혜원, 반주 김현아) 제 3회 정기 연주회가 3월 21일 토요일 오후 6시, 미주 평안교회에서 개최된다.

소프라노 김미진, 메조 소프라노 정미아, 바이올린 앤디 박, 드럼 Paul 서문이 출연하며, 블레싱 여성 합창단이 특별 출연한다.

일시: 3월 21일(토) 오후 6시  
장소: 미주평안교회(170 Bimini Pl, LA, CA)



## 김라니 목사 선교 에세이 출판 기념예배

김라니 목사 선교 에세이 ‘그 눈물이 찬양이 되기까지’ 출판 기념예배가 3월 23일(월) 오후 5시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다.

이 책은 김라니 목사가 수년간 40여 개국을 방문하며 순종으로 걸어온 선교 여정을 기록한 에세이다.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찬양, 이름 없는 마을에서 울려 퍼진 복음의 멜로디, 선교 현장에서 받은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의 감동을 담았다. 하나님께서 체질을 만들어 주셔서 어느 나라든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잠들며 사역할 수 있었

고, 그 사이에 논문을 쓰며 선교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

책은 단순한 선교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비전을 주시고 열방으로 이끄신 과정을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심정으로 풀여냈다.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는 “여러 선교지 이야기를 통해 하나



님의 인도하심과 열매 맺는 인생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일시: 3월 23일(월) 오후 5시  
장소: 은혜한인교회  
설교: 한기홍 목사

기독교일보 지령 1000호를 축하합니다

#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진유철 담임목사**  
Senior Pastor Rev. Yu Chul Chin



나성순복음교회

LA FULL GOSPEL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 Tel. 323-913-4499

[lafgcsa@yahoo.com](mailto:lafgcsa@yahoo.com) 유튜브 채널 - '나성순복음교회' @LAFGCTV

예배안내	
1부	오전 7:30 분당
2부	오전 9:30 분당
3부	오전 11:40 분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분당
수요일예배	수요일예배 오후 7:30 분당
금요일예배	금요일 오후 7:30 분당
영아부예배(0-2세)	주일오전 9:30, 11:40 영아부실
유치부예배(3-5세)	수요일 오후 7:30 유치부실
유년부예배	주일오전 9:30(영어), 11:40(한국어) 구교육관
	금요일 오후 7:30(AWANA) 구교육관
WG영어중고등부 예배	주일오전 9:30, 금요일 오후 7:30 영어중고등부실
JVT한어중고등부 예배	주일오전 11:30, 금요일 오후 7:30 한어중고등부실
청년 예배	주일오전 11:40 분당
EM예배	주일오전 9:30
실버드림대학	목요일 오전 9:00 신구교육관
토요한글학교	토요일 오전 9:30 신구교육관

# 故 송순애 사모 천국환송예배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

故 송순애 사모의 천국환송예배가 14일 오전 10시 미주평안교회에서 유가족과 교인, 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주평안교회장으로 엄숙하게 드러졌다.

이날 예배는 박병열 목사의 집례로 진행됐으며, 이정환 장로가 기도하고 박병열 목사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요 11:33-35)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이후 연합성가대와 이화여고 동문합창단의 조가가 이어졌으며, 여러 인사들이 조사를 통해 고인을 추모했다.

윤임상 교수는 조사에서 고인의 삶을 회상하며 “사모님은 음악을 매우 좋아하셨고 크고 작은 콘서트에 참석하며 많은 이들과 교제를 나누셨다”며 “최근 시한부의 삶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셨다. 찬양을 나누려고 한다. 사모님의 고백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화여고 동문인 백혜란 권사는 “사모님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학교 선배들에게 늘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 오랜 투병 가운데서도 항상 온유한 얼굴로 잘 견뎌내셨고, 늘 씩씩하게 운전하며 주변 사람들을 섬겼다”며 “비가 와도 우산을 쓰고 그리피스 파크를 함께 산책하던



故 송순애 사모의 천국환송예배가 미주평안교회장으로 엄숙하게 드러졌다. ©기독일보

기억이 있다.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않겠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남편 송정명 목사는 직접 조사를 전하며 52년의 결혼 생활을 나눴다. 그는 “남편이 추모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아내가 ‘당신이 나를 제일 잘 아니까 당신이 추모사를 해 달라’고 부탁했다. 52년 전 처음 만났을 때 아내는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고, 나는 미국 신학교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처음 만난 뒤 세 달 만에 교제를 시작했고, 여섯 달 만에 결

혼했다. 아내는 매우 검소한 사람이었다. 평안교회 부임 후 생활이 어려웠을 때에도 굶절이 20~30달 러짜리 옷을 사 입고 휴지도 반으로 잘라 쓰며 살았다. 그러면서도 선교사들을 돕는 일에는 늘 앞장섰고,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 헌금하며 섬기는 삶을 살았다”고 했다.

또한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과 송순애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살아온 것”이라며 “목회로 바쁜 가운데서도 세 딸을 정성껏 키워준 아내에게 늘 감사하다”고 밝

혔다.

송 목사는 “아내는 성가대 봉사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라 여기며 연습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다”며 “딸이 셋인데, 아이들이 외향적이라 사커도 하고, 아침부터 테레콜라에 운동을 하러 가는데, 나는 목회를 하느라 바빠서 애들을 챙기지 못했다. 아내가 애들을 잘 키워준 것에 감사하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도 주님의 은혜로 자녀들은 잘 자랐고 아무 걱정은 없지만 자신을 두고 떠나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고 말

했다”고 전했다.

고 송순애 사모는 1951년 경남 마산시 창포동에서 태어나 이화여고와 이화여대 간호학과를 졸업했으며, 1975년 송정명 목사와 결혼해 슬하에 세 딸을 두었다. 이후 미국으로 이민해 목회 사역을 돕고 교회와 선교를 섬겼다.

고인은 생전 암 투병 중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의 발자취를 남겼다. 젊은 시절부터 이어온 찬양에 대한 열정은 육신의 고통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으며, 그 모습은 많은 성도에게 깊은 감동과 귀감을 주었다.

특히 1989년 남편 송정명 목사가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한 이후 약 10년 동안 사모로서 교회를 섬기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헌신적인 삶을 살아왔다.

고인은 2026년 2월 24일 새벽 3시 5분, 향년 74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날 천국환송예배 후 유가족과 참석자들은 오후 3시 30분 헐리우드 포레스트 론 메모리얼 파크에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하관예배를 드렸다.

토마스 맹 기자

# 채안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 감사예배 “시민이 주인되는 정부 만들 것”

2026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채안 후보의 선거 사무실 개소 감사예배가 17일 미주성서화운동본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채안 주지사 후보 선거 사무실 개소 감사예배’로 진행됐으며, 1부 감사예배와 2부 개소식 순으로 진행됐다.

1부 감사예배는 박세헌 목사의 사회로 시작됐다. 찬송과 기도, 성경봉독, 메시지 순으로 이어졌으며, 성경봉독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이 낭독됐다.

메시지는 이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 원로)가 ‘정한 뜻’이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이牧사는 “신앙 안에서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학량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개소식은 에스더 장로의 사회로 진행됐다. 랜스 장로의 인사말에 이어 채안 후보의 정견 발표가 이어졌으며, 이후 샘신 목사와 이재권 장로가 축하의 말을 전했다. 강순영 목사는 채안 후보를 지

지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지금 시대에 신앙과 가치관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권 장로는 감사의 말을 전했고, 강태광 목사는 “채안 후보의 당선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한다”며 합심기도회를 이끌었다. 한기형 목사의 폐회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

앞서 채안 후보는 지난해 11월 18일 로스 코요테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시민이 주인 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다.

채안 후보는 하비스트락처치 담임 목사로, 종교인으로서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수계 커뮤니티의 지지를 얻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현재 주 정부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인 교포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높은 세금과 복잡한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2026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채안 후보의 선거 사무실 개소 감사예배

어 “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채안 후보는 개인 뉴섬 주지사의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

장을 보였다. 그는 “경찰 예산과 소방 예산을 줄이는 등 잘못된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단일 정당 중심의 구조를 깨고 시민 중심의 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정되고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세금 부담 완화와 규제 개선을 통해 모두가 숨 쉴 수 있는 경제 환경을 만들겠다. 분열이 아닌 연합, 좌절이 아닌 희망의 캘리포니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채안 후보는 한국전쟁 직후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했으며, 풀러 신학교에서 학위를 받은 뒤 40여 년간 목회 활동과 지역사회 봉사에 헌신해 왔다. 그는 코로나19 당시 종교 자유 제한에 맞서 소송을 제기해 연방 대법원 승소를 이끈 바 있다.

채안 후보는 “의로운 지도자가 나라를 세운다. 캘리포니아에도 이러한 원리가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날 참석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며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알려달라”며 “여러분이 함께하면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토마스 맹 기자



www.marhlaw.com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변호**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변호

**실력**

문제의 핵심이슈 파악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적용

**정성**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

**책임**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 활짝 열림

**신뢰**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

**상법/부동산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동환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가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뱅크립스**

뱅크립스는 새로운 출발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선택리 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한)마동환 변호사 그룹 대표  
(영)국제이비스 USA 이사장  
(전)남가주 고위임의회 고문 변호사  
(전)재미발달가협의 고문 변호사  
(전)중부상공회의소 이사장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 a x : 213.487.9484 marhlaw@yahoo.com  
Main : 700 S. Flower St., #1000 LA, CA 90017  
3435 Wilshire Blvd, #2700 LA, CA 90010

# 세계기도일 예배, 억압, 박해, 가난 속 희망의 빛을 보다

3월 7일(토) 오전 10시 동양선교회(김지훈 목사)에서 남가주지역 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회장 신상희 사모) 주최로 2026년 세계기도일예배가 개최되었다.

139주년을 맞은 세계 기도일 예배의 올해 주제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11:28)로 기도문은 나이지리아에서 작성했다.

예배는 신상희 사모의 환영 및 인사, 세계기도일 영상, 유화진 권사(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 총회장)의 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 소개, LA여성선교협창단(지휘 전현미, 반주 신혜영, 단장 정의희)의 특별찬양, 김민선 집사(토렌스제일장로교회) 성경봉독, 정의희 권사(동양선교회) 대표기도, “마음 두드림”찬양팀, 벨리 대한 노인회 특별찬양, 김지훈 목사 설교, 현장의 소리, 다짐과 봉헌, 봉헌, 드림 크로마 하프팀 특별 찬양, 이영희 장로(드림교회) 봉헌기도, 석승연 권사(온누리교회) 함께 드리는 기도, 최순자 사모(LA임마누엘교회) 파송과 결단, 김지훈 목사 축사, 광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지훈 목사는 요한복음 4장을 중심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새로운 관점에서 재해석하며, 각 개인의 삶에 대한 ‘확증 편향의 오류’로부터 벗어나, ‘인간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마리아 지역은 행정상으로 므깃도라는 지역에 속해 있었다. 므깃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언덕지대이기 때문에 언덕을 뜻하는 ‘하르’라는 히브리어를 붙여서 하르 므깃도(חרמגיט)라고 불렀다. 당대 사람들은 이것을 아마겟돈이라고 발음했다. 계시록 16장 16절처럼, 왕들이 모여들어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혼란스러운 곳이었다. 사마리아 땅에는 질병과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여인이 허다했다. 남편을 잃은 여인은 형사취수제라는 율법을 따라 형의 동생과 함께 살아야 했다.”

“사람이 자기 인생을 살 때 연속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살면서 여러번 실패와 아픔을 경험하게 되면, 나는 계속 실패할 것이라고 확증하게 된다. 문제는 이런 실패의 연속성이 믿는 자 속에도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다. 믿는 자에게 같은 실패가 몇 번 반복될 수 있지만, 실패할 것 처럼 느껴지지만 반복되는 좌절과 실패 속에도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그때부터는 불행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스토리로 새롭게 쓰여진다. 하나님이 이야기గా 나를 통해 다시 쓰여진다.”



2026년 세계기도일 예배가 남가주에서는 3월 7일 동양선교회에서 열렸다. ©기독교일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정해져 있는 것 같은 좌절의 연속에서도 하나님께 내 역사를 새롭게 써 나갈 것이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보인다. 인간의 시선으로는 내 안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절망적인 인간의 모습밖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다시 살아게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선명하게 보인다.”

### 베아트리스 이야기

이어서 나이지리아 현장의 이야기를 나눴다. 정영희 사모(새영교회)는 28세에 남편을 잃고, 사회적 지위를 잃은 ‘베아트리스의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싱글맘으로 3자녀를 키워야

했지만 지역 교회 프로그램을 통해 평안을 얻게 되었다고 나누었다.

### 자토의 이야기

황태미 권사는 ‘자토(Jato)의 이야기’를 통해 나이지리아의 종교적 박해 상황을 전했다.

“저는 나이지리아 북부에서 14살 된 딸을 키우는 자토이다. 저는 매일 아침 딸을 등교시킬 때마다 두렵다. 몇 해전 한 레아라는 소녀가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던 학교에서, 보코하람에 납치되었기 때문이다. 저는 제 딸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레아는 납치된 지 8년이 되었지만 신앙을 지키고 있어 여전히 포로로 붙잡혀 있다.”

그는 종교 박해와 납치 사건을 접할 때 분노를 느끼지만, 너희를 핍박

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실천하기 원한다고 말했다.

### 블레싱의 이야기

지미리 사모(예수 생명팀 교회)는 라고스 블레싱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나이지리아의 상황이 더 나아지길 바랐지만 절망과 빈곤의 악순환이 지속되었다며, “이러한 현실이 우리 마음에 미치는 해악을 목격했다. 모든 사람이 절망에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저는 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본다. 제 이웃 그레이스는 같은 해 남편과 직장을 잃었다. 그녀는 좌절하지 않고 수제 비누를 만들어 파는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 생계를 유지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었다.” “저는 넘어진 자를 일으킨다는 성경 말씀을 기억한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이를 위해 소망하며 기도할 것이다.”

강정희 장로(토렌스제일장로교회), 이린애 장로(선한목자교회), 장영란 장로(남가주 살롬교회)가 각 상황을 위해 중보 기도했다. 김보비 권사(온누리교회)가 다짐과 봉헌을, 함께 드리는 기도를 석승연 권사(온누리교회)가 이끌었으며, 마지막 순서로 최순자 사모(LA임마누엘교회)가 파송과 결단의 시간을 이끌었다. **주디 한 기자**

## 감사한인교회 43주년 기념 부흥성회 “예수 믿다, 봉변을 당했을 때...”



감사한인교회(구봉주 목사)는 3월 13일(금) - 15일(주일)까지 박신일 목사(그레이스한인교회)초청 창립 43주년 기념 부흥성회를 개최했다.

부흥성회 둘째 날인 14일 오전 예배에서 박신일 목사는 ‘믿음의 사람’(마태복음 14:22-25)이라는 제목으로, 예수께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 앞에 물위를 걸어오신 장면을 통해, 인생이라는 바다를 어떻게 건너야 하는지 설교했다.

박신일 목사는, “모든 것의 최우선이 주님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다른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통

제되는데, 다른 것이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순간 인생은 혼돈이 온다”며 말씀을 시작했다.

그는 제자들을 보내신 후 주님께서 홀로 산에 올라가셨다며, 이 홀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통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고 실천적인 신앙의 를 제시했다.

###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길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길 중에 하나가 뭘지 아세요? 골방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 주님은 언제나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 뜨겁게

공동체 신앙 생활, 스몰 그룹 시간 다 필요하지만 이것이 살아나려면 홀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은 문을 닫고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하신다. 하루에 5분만 홀로 주님 앞에 엎드려 보면, 은혜가 쏟아질 것이다. 43주에 맞이한 이 귀한 교회 성도님들,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스마트폰과 아이패드를 다 내려놓고 5분만 기도하라. 저녁에 침대에 올라갈 때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책을 읽으라.”

“본질로 돌아간다는 말은 세상의

흐름에 거슬러 산다는 말이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과 똑같이 살면 안된다. 거꾸로 살아야 한다. 우리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시간을 먼저 지켜야 한다. 기독교 영성에서는 이것을 리듬이라고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 우리의 박자를 갖고 살아야 하는데 세상의 리듬을 따라사는 것을 멈춰야 한다. 주님 만나기 위해 5분만 멈추면 5분이 24시간을 통제한다. 5분을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다.”

**주디 한 기자** → 12면에서 계속

**아버지 밥상교회(홍리스미션)**  
 홍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  
 34191 Harvard rd Newberry springs ca 92384

**(주)대원 전자동 시설로 만든 왕김밥 4종**  
 새우튀김 김밥/매운 오뎅 김밥/참치 김밥/야채 김밥  
**교회 스페셜 무료 딜리버리**  
 10pcs 한줄 \$4.50 60줄 이상 주문가격  
**주문의 949-330-9033**

## 대신교단 총회장 정정인 목사 초청 예배

부활의 기쁨과 생명의 소망이 충만한 이 계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정중히 초청합니다. 대신교단 창립 65주년과 미주 대한신학대학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며, 한 세기를 넘어 신앙의 길을 걸어오신 이의완 박사님의 103세 생신을 감사로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대신교단 총회장 정정인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믿음의 유산을 함께 기뻐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설교 : 정정인 목사(대신교단 총회장)
- 일시 : 2026년 5월 9일(토) 오전 11시
- 장소 : 풍성한 교회(박효우 목사 시무)  
291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정정인 목사 (대신교단 총회장)



이의완 박사

**주관 : 이의완 박사님 103세 생신 축하 준비 위원회**



# 센터메디컬그룹



“아버지와 딸, **두 세대가 함께**하는 곳  
**가족을 대하는 마음으로**  
 사명감, 사랑, 그리고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강신욱** 대표 원장  
 Shin Wook Kang, MD



**헬렌 강** 내과  
 Helen Kang, MD



**내과 진료**

고혈압 | 당뇨병 | 고지혈증  
 만성질환 | 예방접종 | 성인병  
 각종 영양주사



**시니어 전문 진료**

노인성 만성 질환 | 근감소증  
 식욕부진 | 만성통증 관리  
 인지 기능 저하

**강신욱 내과 INFO**

2727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213.380.7077**

월요일 - 금요일 | 9 AM - 5 PM

**강신욱 내과 주치의는 센터메디컬그룹과 함께합니다**

# 교회는 이제 디지털 공간에서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웬디 유르고의 기고글인 "764' 조직과 온라인 포식자들: 이제 교회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싸움에 나서야 한다'(764 and online predators: The Church must enter this war on our kids)를 16일(현지시각) 게재했다.

웬디 유르고는 기독교 보수 성향의 핀테크 기업 리버 페이먼트(Revere Payments)의 창립자이자 CEO로, 미국 내 주요 신앙 기반 및 자유 가치를 지향하는 단체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는 신앙과 자유, 그리고 가정의 회복과 강화를 주제로 글을 쓰고 강연하는 작가이자 연사이기도 하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온라인 착취 네트워크

'764'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미국 연방 당국은 여전히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법 집행 기관들의 경고는 점점 더 긴박해지고 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이러한 조직들과 연관된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 수백 명의 용의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 미 의회 지도자들 역시 이러한 온라인 착취 네트워크를 법 집행 기관이 어떻게 추적하고 해체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착취 관련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위협은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또 하나의 공동체가 있다. 바로 교회다. 오

늘날 기독교 가정은 역사상 가장 기술적으로 연결된 세대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교회는 순결, 인격, 도덕적 책임에 대해 성실하게 가르친다. 청소년 사역자들은 젊은이들을 지도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는다. 부모들은 교회가 가정에서 가르치는 가치들을 함께 지켜 주고 강화해 주기를 신뢰한다.하지만 아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환경은 많은 신앙 공동체가 인식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해 왔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그루밍(grooming)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듯 인터넷의 어두운 구석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은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친구들과 대화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바

로 그 디지털 공간 안에서 시작된다. 온라인 포식자들은 익명성과 친숙함을 이용한 다. 그들은 천천히 신뢰를 쌓으며, 종종 다른 아이인 것처럼 가장한다. 그리고 화면 너머의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혀 의심하지 않는 청소년들을 노린다.

아이들은 이러한 속임수를 쉽게 상상하지 못한다. 최근 필자가 딸과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딸은 누군가가 온라인에서 아이인 척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엄마, 왜 누가 그런 일을 하죠?" 그 질문은 많은 부모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한 사실을 보여준다.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말을 믿는다. 누군가 온라인에서 "나는 열두 살이야"라고 말하면, 아이들은 그대로 믿는다.

그들의 순수함은 예측 가능하다. 그리고 바로 그 예측 가능한 순수함이 악용될 수 있다. 교회는 오랫동안 마음을 지키고 관계와 삶에서 순결을 추구하는 중요성을 가르쳐 왔다. 이러한 가르침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달라졌다.

디지털 시대에서 순결은 기술 영역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젊은 세대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일은 이제 그들의 디지털 삶을 지키는 법을 가르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오늘날 청소년 모임을 조금만 지켜보면 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일어났는지 알 수 있다. 많은 학생들이 이미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모임에 온다. 대화는 그들이 서 있는 방에서 시작해 휴대폰 화면 속 디지털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그리고 모임

이 끝난 뒤에도 그 대화는 계속된다. 이제 교회 생활과 온라인 생활 사이의 경계는 사실상 사라졌다. 이 현실은 사역의 영역도 바꾸어 놓았다. 젊은이들이 친구들과 계속 연결될 수 있게 해주는 같은 기기들이 동시에 메시지 플랫폼, 게임 환경, 온라인 커뮤니티로 이어지는 문을 열어 준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온라인 포식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만약 교회가 다음 세대를 제자로 세우려 한다면, 그들의 일상 삶을 형성하는 환경을 이해하고 대비하도록 준비시키는 일도 함께 해야 한다. 이것은 신앙 공동체에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교회는 청소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공간을 이해하고 부모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청소년 지도자들은 평범한 온라인 대화 속에서 시작되는 조작과 그루밍의 경고 신호를 알아볼 수 있는가?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현실 세계뿐 아니라 디지털 세계에서도 지혜와 분별력을 실천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가?

오늘 세대에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학교, 운동팀, 청소년 모임에서 시작된 대화는 집에 돌아간 뒤에도 메시지 앱과 게임 플랫폼,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계속 이어진다.

따라서 제자훈련 역시 그 공간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수십 년 동안 교회는 가정들이 지침과 보호, 공동체를 찾는 장소였다. 부모들은 목회



웬디 유르고, @Christian Post

자와 청소년 지도자들이 자녀들에게 올바른 가치를 심어 주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그 신뢰는 새로운 책임을 동반한다.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이해는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다. 그것은 양떼를 보호하는 사명의 일부가 되었다.

아이들은 자신이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위험을 스스로 알아차릴 수 없다. 그들에게는 안내가 필요하다. 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이해하는 어른들이 필요하다.

기독교 가정에서 이러한 안내는 가정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교회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날 디지털 세계는 아이들의 삶이 펼쳐지는 또 하나의 현실이 되었다. 다음 세대를 돌보는 사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신앙 공동체라면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은 언제나 교회의 사명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은 아이들이 살아가고 배우고 관계를 맺는 디지털 공간까지 확장되고 있다. 온라인 포식자들은 결코 수동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교회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최승연 기자

## 美 시카고시, 거리 설교자 체포로 피소... “종교·표현 자유 침해”



©ACLU

미국 시카고시가 거리 설교자들을 체포한 것과 관련해 헌법 소송에 휘말렸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법과정의 센터(American Center for Law and Justice, 이하 ACLU)는 최근 시카고시가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며 민권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발단은 얼마 전 밀레니엄 공원 인근에서 설교하던 브렛 라이오(Brett Raio)가 체포된 것이었다.

라이오는 기소됐으나 사건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 증거가 제시되면서 재판 전 그 기소가 취해졌다. 그러나 불과 며칠 후, 시카고 경찰은 같은 장소에서 설교하던 리티크(Reetik)와 페레즈(Perez)를 유사한 혐의로 다시 체포했다.

소장에 따르면, 경찰관들은 현장에 도착

하자마자 소음 수준을 측정하지도 않고 설교자들을 체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의 조례는 확성기 소음이 약 30m 거리에서 측정해 대화 수준을 초과할 경우에만 허가를 요구한다. 원고 측은 “해당 법 집행이 기독교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리 설교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보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리티크와 페레즈는 7시간 이상 유치장에 억류됐다가 풀려났다. 소송은 이 기간 동안 발생한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소장은 또한 시카고시가 종교 설교자에게는 소음 규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면서도 다른 형태의 도시 소음은 허용했다고 지적한다.

신미셀 기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발행인** : 이인규 **이사장** : 폴킴

**편집국장** : 맹창현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E-mail** : chdaily@daily.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 이제는 안심하자!

#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에스더 이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 당신께 맞는 의사, 찾는 병원

## 모두 SMG에 있습니다

5,500명의 전문 의사와 다양한 병원 네트워크와 함께  
당신의 건강을 지켜 드립니다

### 18개 연계 대형 병원

- UCLA
- 시더스-사이나이
- 할리우드 장로병원
- 세인트 주드
- 세인트 조셉
- 애너하임 리저널
- PIH 굿사마리탄 외

문의전화 \_\_\_\_\_

**800.611.9862**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카카오톡 채널에  
방문하세요!

홍보대사 **고두심**



이 광고에서 사용된 지표는 SMG가 2025년에 남가주 지역의 한인 주치의와 전문의 네트워크 규모에 대해 조사한 내부데이터에 기반한 것입니다. 서울메디칼그룹은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다양한 건강보험과 함께 독립된 의사 네트워크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혜택과 네트워크 규모는 각각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헬스 플랜과 지역에 따라 다양합니다. 의료 서비스는 건강보험에 따라 제한, 제외, 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메디칼그룹 800-611-9862로 문의하십시오.

# 해외한인장로교회(KPCA) 50주년 희년 총회 준비 본격화

## “회복 넘어 사명으로” 교단 미래 조망

해외한인장로교회(총회장 김경수 목사, 이하 KPCA)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희년 총회를 준비하며 다양한 기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단은 총회 기간 동안 기념 논문 발표회와 50년사 발간, 희년 집회 등을 통해 지난 반세기를 돌아보고 교단의 정체성과 미래 사명을 함께 조망할 계획이다.

KPCA는 오는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뉴욕 퀸즈한인교회(담임 김바나바 목사)에서 제50주년 희년 총회를 개최한다. 5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시설 및 공향과의 인접성을 고려한 끝에 장소가 결정됐다. 총회에는 각 노회 총대들뿐 아니라 여선교회연합회와 사모회 등 교단 구성원들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는 창립 50주년을 맞는 해에 열리는 만큼 여러 기념 사업이 함께 준비되고 있다. 교단은 50년사 발간, 기념 논문집 출판, 희년 집회 등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희년 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KPCA는 1976년 미주 한인 교회의 연합 속에서 출범했다. 당시 서부의 서노회, 중부의 시카고노회, 동부의 뉴욕과 필라델피아를 중심으로 한 동노회 등 세 노회가 중심이 되어 교단이 창립됐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올해 뉴욕에서 열리는 총회는 교단 창립 초기 동부 지역의 뿌리를 다시 돌아본다는 점



KPCA가 50주년 희년총회를 앞두고 다양한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연동교회에서 열린 제49회 정기총회 단체 기념촬영. ©KPCA

에서도 의미가 있다.

창립 50주년을 맞는 이번 총회는 지난 반세기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준비되고 있다.

이번 총회를 앞두고 교단의 지난 50년을 정리한 ‘KPCA 50년사’가 발간된다. 이와 함께 교단의 역사와 신학, 선교적 과제를 조망하는 50주년 기념 논문집도 총회 기간에 총대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논문집에는 교단의 현재와 미래를 다양한 관점에서 다룬 연구들이 포함됐다. 주요 주제로는 △총회의 50년 역사와 인물사 △통계로 보는

해외한인장로교회 교단 현황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단의 역할 △KPCA 교단의 정체성과 신학 교육의 미래 △이민교회의 다세대 통합예배 △디아스포라 교회의 다음세대 신앙교육 △글로벌 선교 △초고령화 시대 교회의 사명 △여성 리더십 개발 △인공지능 시대의 신학적 과제 등이 제시됐다.

이 가운데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의 다음세대 신앙교육에 관한 기독교교육학적 고찰’과 ‘글로벌 선교’ 두 논문은 총회 기간 중 발표되는 학술 발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총회 둘째 날인 수요일 저녁에는

희년대회 겸 기념 집회도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교단 50년의 역사를 영상으로 돌아보고 감사 예배와 기념 순서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50주년 준비위원장을 맡은 김종훈 목사는 여러 분과위원회가 전문성을 살려 준비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50년사 편찬은 역사 신학을 전공한 전 총회장 박대겸 목사가 맡아주셔, 기념 논문집 발간은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CPU) 이상명 총장이 위원장으로 담당해주셨다”며 “짧은 시간 안에 방대한 작업을 감당해 준 모든 위원들에게 감

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준비 과정과 관련해 “전체 구조를 세운 뒤 각 위원회가 전문성을 살려 일하도록 맡기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준비가 진행됐다”며 “각 분과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일정을 세우고 맡은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주었다”고 전했다.

김 목사는 이번 희년 총회의 의미에 대해 “성경에서 희년의 핵심은 회복”이라며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번 총회가 교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고 그 회복을 넘어 사명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총회 주제도 ‘회복을 넘어 사명으로’로 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민교회의 미래와 관련해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있지만 교회는 결국 그리스도의 한 몸 한 지체라는 교회론적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1세대와 2세가 함께 연결되며 신앙의 흐름이 이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며 교회를 사용하시는지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원 기자

# 나이지리아 카두나주, 무슬림 공격으로 목사 사망하고 수십 명 납치돼

나이지리아 카두나주에서 플라니족 무장세력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기독교인 거주 지역을 습격해 목사 한 명을 살해하고 수십 명을 납치했다.

2월 26일 밤 8시 30분경, 카두나주 산가 카운티 도로 인근과 마이토조 마을에서 무장세력의 공격이 있었다. 이 공격으로 복음개척교회(Evangelical Reformed Church of Christ, ERCC) 소속 조슈아 아지야(Joshua Ajiya) 목사가 목숨을 잃었다. 아지야 목사는 해당 마을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변을 당했다. 지역 주민 에마누엘 스티븐(Emmanuel Stephen) 목사는 “무슬림 플라니 산적들이 마을을 공격해 아지야 목사를 비극적으로 살해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올해 들어 같은 지역에서 발생한 두 번째 대규모 공격이

다. 지난 1월 5일에도 산가 카운티 아락 마을에서 기독교인이 30명이 넘게 납치되고 2명이 살해되는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는 플라니 목자들의 소행이며, 납치된 사람들 가운데에는 살해된 기독교인 두 명 중 한 명인 케파스 하빌라 아베릭(Kefas Habila Averik)의 어머니 아베릭 아락(Averik Arak) 여사도 포함돼 있었다.

피해 주민 토마스 하산(Thomas Hassan)은 “이번 공격 이후 여러 마을 주민이 실종됐다”며 “하나님께서 피해를 입은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공동체를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폭력 사태는 나이지리아 전역에서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오픈도어의 2026년 기독교 박해국 목록에 따르면, 2024년 10월부

터 2025년 9월까지 전 세계에서 신앙 때문에 살해된 기독교인 4,849명 중 무려 72%인 3,490명이 나이지리아인이었다. 이는 전년도 3,100명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로, 나이지리아는 기독교 박해국 중 7위에 올랐다.

나이지리아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 같은 공격이 단순한 부족 갈등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땅을 빼앗고 이슬람교를 강요하려는 의도적인 종교적 박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영국의 ‘신념과 자유를 위한 초당파 모임’(APPG)은 일부 플라니 무장세력이 보코하람 및 ISWAP과 유사한 전략을 채택해 기독교인과 기독교 상징물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폭력 사태가 나이지리아 북중부를 넘어 남부로도 확산되고 있으며, 북서부에서는 알카에다와 연계된 새로운 지하드 테러 단체



나이지리아 남부 카두나주. ©위키미디어

라쿠라와(Lakurawa)까지 등장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납치를 통한 몸값 요구 사건도 최근 수년간 크게 늘고 있어,

나이지리아 기독교 공동체의 안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촉구되고 있다.

최승연 기자



SINCE 1972 

**기독교일보 지령 1000호를 축하합니다**

**가장 좋은 안경은  
가장 세심한 검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할 수 있는 것과 잘 하는 것은  
크나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더 많은 전문가와 풍성한 제품으로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십니다.**

■ 진실한 마음!!!

■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 고객께 NO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

**OPEN HOURS**  
**오전 10시~ 오후 6시30분**  
**일요일은 쉽니다**

편안한 세상을 만드는 안경,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

 **금강안경 검안과**

**LA점 (로데오갤러리아)**  
**213.384.1001**  
833 S. Western Ave. #2, L.A., CA 90005

**가든그로브점 (H마트몰내)**  
**714.530.1001**  
8901 Garden Grove Bl. G.G., CA 92644

# 전쟁 속 이란 교회 “해산의 고통, 새 생명 위해 기도”



이란 국기. ©Wikimedia Commons/Nick Taylor ©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픈도어선교회는 최근 이란 기독교인들의 상황을 공유하며 기도를 요청했다.

이란 남부 출신의 기독교인 여성 사하르(Sahar·가명)는 “이곳 사람들에게 희망이 필요하다. 구세주가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계속 기도해 달라”고 전했다.

그녀의 고백은 격렬한 군사 공격과 계속되는 파괴로 얼룩진 이란의 현실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그녀는 “이는 ‘출산의 고통’과 같다”며 “이것이 곧 생명과 자유를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말했다.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최근 학교와 병원 같은 민간 시설을 군사 작전에 활용하면서 수많은 어린이와 취약 계층을 위협에 노출시키고 있다. 인터넷은 전면 차단됐고, 수백만 명이 해외 가족과의 연락조차 끊긴 채 고립된 상황이다.

특히 많은 기독교인과 정치범이 수감된 테헤란의 예빈 교도소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 수감자들은 식량 배급과 통신이 차단된 채 알려지지 않은 장소로 이송되고 있으며, 이스라엘군은 지난 3월 4일 교도소 주변 민간인에게 대피 경고를 발령했다. 현재 신앙을 이유로 수감된 기독교인은 약 43명으로, 상당수가 예빈 교도소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군사 공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란 지도부는 극도의 불확실성에 빠졌다. 아들 무즈타파 하메네이가 후계자로 거론되고 있다는 미확인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향후 통치와 탄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 절박한 기도 이어져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란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꺾이지 않고 있다. 항구 도시 출신 기독교인 아흐마드(가명)는 “시편 94편이 요즘 위로가 된다. 절망과 불의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판하시며 살아 역사하신다고 선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쟁의 고통은 이란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해외에 살고 있는 젊은 기독교인 여

성 아리나(가명)는 “시위 소식을 듣자마자 동포들과 함께 거리에서 구호를 외치고 싶었다. 이 시기에 고국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프다”고 눈물을 삼켰다. 이란을 탈출해 난민으로 살고 있는 메리(가명)는 현재 이란 최전선에서 해군으로 복무 중인 오빠를 위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요청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이란 신자들의 기도는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상기시켜 준다”고 전했다.

기독교인 베흐자드(가명)는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뜻에 따라 이란에 새로운 미래가 도래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오픈도어선교회가 공유한 중보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 보호: 폭력과 두려움으로부터,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위협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받도록.

가정의 위로: 가족들과 부모님들이 위로받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두려움을 잠재우도록.

수감 기독교인 보호: 수감 시설의 기독교인들이 인간 배패나 협상 도구로 이용되지 않고 모든 해악으로부터 보호받도록.

그리스도의 임재: 수감자들이 매 순간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고 혼자가 아님을 깨달아 힘을 얻도록. 또한 그 가족들에게도 힘과 지혜로운 법률적 지원이 주어지도록.

자비로운 석방: 하나님께서 관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수감된 기독교인들이 교도관의 눈에 은혜를 입고 속히 석방돼 모든 권리를 회복하도록.

신자들의 지혜와 용기: 두려움과 이주, 불확실성에 직면한 신자들에게 일상 속에서 지혜와 담대함이 주어지도록.

나라의 치유와 평화: 폭력이 종식되고 영원한 평화가 이란 땅에 임하도록.

의로운 지도자: 하나님께서 정의롭고 자비로운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이란과 중동 전역을 더 이상의 해악과 유행 사태로부터 지켜주시도록. 신미셀 기자

# 니카라과, 가톨릭 서품 금지령... 복음주의 교회도 압박

니카라과 정부가 일부 가톨릭 교구에서 사제와 부제의 신규 서품을 공식 금지하면서, 현지 교계 지도자들이 종교 공동체에 대한 탄압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가톨릭 통신사 ACI 프렌사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히노테가, 시우나, 마타갈파, 에스텔리 등 상주 주교가 공석인 4개 교구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 경찰은 외부에서 파견된 주교가 서품을 집행하는 것조차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학 과정을 마친 젊은 성직 지망생들이 정식 사목 활동을 시작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분석가들은 이를 가톨릭교회의 제도적 기반을 무너뜨리려는 의도적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다.

종교 탄압은 가톨릭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이 그의 배우자인 로사리오 무리요 공동 대통령의 행정 정부 아래에서, 복음주의 공동체 역시 전례 없는 압박을 받고 있다. 니카라과 내무부는 최근 수년 사이 행정 위반을 명목으로 복음주의 교회와 선교단체를 포함한 1,500개 이상의 비영리단체의 법적 지위를 말소하고, 해당 자산과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켰다.

유서 깊은 교단과 독립 선교단체의 지도자들은 감시와 협박에 시달리고 있

며, 기독교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국 다수가 강제 폐쇄됐다. 시민 시위 현장에서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거나 설교 내용을 정부 입장에 맞추기를 거부한 목사들이 ‘조국에 대한 반역죄’로 기소된 뒤 망명길에 오르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피해는 특히 북부 마타갈파 지역에서 두드러진다. 이 지역 성직자의 약 70%가 신변 안전을 이유로 사실상 강제 망명 상태인 것으로 추산되며, 여러 교구의 운영 역량도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종교 자유 전문가들은 사태를 심각하게 진단하고 있다. ‘니카라과: 박해받는 교회’ 보고서를 집필한 마르타 파트리시아 몰리나 연구원은 “서품식이 억압의 현실 속에서 신자들에게 ‘전례적 오아시스’ 역할을 해 왔다”고 표현한 바 있다. 비평가들은 “일련의 정책은 니카라과 민족해방전선의 정치 이념을 위해 기독교 교회의 영적 영향력을 근절하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현지 신자들의 저항 의지는 꺾이지 않고 있다. 망명 중인 한 사제는 “니카라과의 교회는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멈추지 않았다”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성직 소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윤준 기자

#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섬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내세예배 오전 9:15) 새벽예배 (월-토) 오전 5시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화-토) - 오전 6:0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청년부/도림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치료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ga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일참배와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청소년예배 오전 10:50 토요일전세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 새을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분당 OMC 중교동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분당 OMC중앙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O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8층 주일청년부/도림 오전 10:00 분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466-1234 Email: omccon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삼위일체와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교회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티노 오후 5:0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온라인

**김형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교회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양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일 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 (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토요새벽예배 새벽 6:30  
EM 주일예배 오전 10:30

**한현중** 담임목사

**LA장로교회**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 407-1600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국교회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블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김은광** 목사 **백승유** 목사

**우리가교회**  
성도된 우리가 교회입니다

1060 Crenshaw Blvd(2F), L.A, CA 90019  
T. (323)610-6989, www.uoorig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3부예배 오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형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윤성현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김정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김경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가명훈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장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c.org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에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방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C/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세리투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창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정유성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EM예배 11:00am  
 주일2부예배 9:30am 수요일찬양회 7:30pm  
 주일3부예배 11:15am 토요일예배 6:00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org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장년부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이우호 담임목사**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밸리든구주재단: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지영향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림학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회 오전 9:3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김한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예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반인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박신웅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장년부 오후 2:30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9:15 토요일성경인사예배 오전 5:30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루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당반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박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김종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월/수/금) (토/주일) 새벽 6:00

**오렌지카운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주혁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2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신용환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교회학교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유치부, 원동부,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영어유치부, 원동부,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월-토 오전 6:0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매달 마지막 금요일)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15-4020

## LA 동부 지역

**유영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집회 저녁 7:30(금)  
 EM(Holy War)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구경모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최원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평일)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온라인)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622-2324, F. (909)622-1480 / inlandchurch.org

# 美 와이오밍, 심장박동 감지 후 낙태 금지법 서명



▲와이오밍 주의회. ©구글맵

미국 와이오밍주가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된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률을 공포하면서, 이 같은 법안을 시행하는 다섯 번째 주가 됐다.

공화당 소속 마크 고든(Mark Gordon) 주지사는 이번 주 하원법안 126호에 서명했다. 앞서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와이오밍주 하원은 지난달 51대 7로, 상원은 27대 4의 압도적인 표 차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찬성표는 대부분 공화당에서, 반대표는 주로 민주당에서 나왔으나, 양원에서 각각 공화당 의원 2명도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법안 서명은 와이오밍주 대법원이 지난 1월 주 헌법 제1조 38항, 즉 주민에게 스스로 건강 관리 결정을 내릴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을 근거로 기존의 거의 전면적인 낙태 금지법을 위헌으로 판결한 지 두 달 만에 이뤄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하원법안 126호가 법원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지난 1월 판결에서 법원이 낙태로 인해 소멸될 생명을 보호하는 데 주정부가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하원법안 126호는 법을 위반한 의사에게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1만 달러의 벌금형, 그리고 전문 자격증 박탈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낙태 시술 전 태아 초음파 영상을 환자에게 볼 기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최소 48시간 전 부모에게 통지하고 미성년자 본인과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다. 부모 동의 조항의 예외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다.

낙태 반대 단체 전국생명권옹호권의 캐럴 토비아스 회장은 "이번 조치는 태아의 인간성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산모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어떻게 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국적인 논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심장박동 기준 법안을 시행 중인 주는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오와, 사우스캐롤라이나이며, 와이오밍이 다섯 번째로 합류하게 됐다. 한편 앨라배마, 텍사스 등 12개 주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임신 전 기간 동안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 중이며, 나머지 29개 주는 생명 보호 관련 규정이 거의 없는 상태다.

이번 법안은 미국 대법원이 2022년 돌스 대 잭슨 판결에서 헌법상 낙태권이 없다고 판결한 이후 각 주 차원에서 이어지고 있는 생명 존중 입법 흐름 속에서 나온 것이다.

신미셀 기자

# 美 여론, 이스라엘 지지 전 연령층서 하락... 청년층 부정 인식 급증



©Unsplash/ Levi Meir Clancy

최근 여론조사 결과, 2023년 이후 미국 내 모든 연령대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한 가운데, 특히 18~34세 젊은 층에서 가장 큰 감소폭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언론인 NBC 뉴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8~34세 응답자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63%가 이스라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긍정적인 평가는 13%, 중립은 23%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등록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매체는 이를 두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유권자 인식의 "중대한 변화(sea change)"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 수치는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직후 실시된 조사와 비교해 큰 변화를 보였다. 당시 35세 미만 응답자의 26%가 이스라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37%는 부정적, 37%는 중립적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변화 폭이 가장 적었으나, 이들 역시 이스라엘에 대한 긍정 평가가 2023년 64%에서 올해 55%로 감소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민주당과 무당층에서 부정적 인식 증가가 두드러졌다. 올해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의 약 60%, 무당층의 약 50%가 이스라엘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였으며, 이는 2023년 각각 35%, 22%에서 크게 상승한 수치다.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긍정 평가는 감소했다. 2023년 63%였던 긍정 응답은 올해 54%로 낮아졌다.

이번 조사는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 이란 전쟁 등 외교 정책 이슈를 둘러싸고 분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발표됐다.

한편, 가자지구 전쟁 이전부터 미국 내 젊은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이스라엘 지지와 종말론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출간된 '21세기 기독교 시오니즘: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 복음주의적 의견'(Christian Zionism in the Twenty-First Century: American Evangelical Opinion on Israel)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30세 미만 복음주의자 가운데 이스라엘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8년 67.9%에서 2021년 말 33.6%로 크게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의 원인으로 미국 대학 내 문화적 흐름, 다양한 종말론 해석의 확산,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접근성 증가 등을 지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 국방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란 전쟁에 종교적 요소가 존재함을 인정하며, 기독교·유대교·이슬람의 종말론이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경 기자

# 美 건국 250주년 맞아 '성경 전체 공개 낭독' 행사 개최



(왼쪽부터 순서대로) 캐시 아일랜드, 패트리샤 히튼, 캔디스 뷰어, 케빈 소르보, 콜튼 디슨, 존 쿠파 등이 성경 낭독자로 참석한다. ©CBN 뉴스 보도화면 캡처

올해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기독교 지도자와 유명 인사들이 성경 전체를 공개적으로 낭독하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국이 성경을 읽다'(America Reads the Bible) 행사가 오는 4월 18일 오후 7시 워싱턴 D.C.에 위치한 내셔널커뮤니티교회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에는 400명 이상의 기독교 지도자와 선출직 공무원, 연예인들이 참석해, 7일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낭독할 예정이다.

기독교 단체 '크리스천인게이지드'(Christian Engaged) 설립자이자 이 행사를 기획한 버니 파운즈(Bunni Pounds) 대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과 가정, 공동체, 나아가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며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미국인들이 함께 성경을 듣거나 소리 내어 읽으며 강력한 연대와 믿음의 실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레이트아메리칸미디어(Great American Media)의 빌 애벗(Bill Abbott) 대표는 "이 행사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와 자유가 갑자기 생겨난 것

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형성됐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고 했다.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개막식은 내셔널커뮤니티교회에서 90분간 생중계되며, 그레이트아메리칸퓨어플릭스(Great American Pure Flix)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4월 19일부터 25일까지는 성서 박물관의 월드 스테이지 극장에서 성경 전체 낭독 행사가 이어진다. 100개 이상의 각국 선교단체와 475명 이상의 국가 지도자들이 참석해 성경을 낭독할 예정이며, 누구나 성서 박물관을 직접 방문해 참여하거나 온라인 생중계(AmericaReadsTheBible.com)로 시청할 수 있다.

정치인 가운데는 마이크 허커비 미국 대사, 테드 크루즈 텍사스주 상원의원, 제임스 랭크퍼드 오클라호마주 상원의원, 짐 뱅크스 인디애나주 상원의원, 조쉬 브레친 오클라호마주 하원의원, 조디 애빙턴 텍사스주 하원의원, 그렉 애벗 텍사스주 주지사, 에릭 발리슨 미주리주 하원의원, 마이클 클라우드 텍사스주 하원의원, 사라 허커비 샌더스 아칸소주 주지사, 그렉 스투브 플로리다주 하원의원 등이 참석한다.

이미경 기자

# 목사 된 前 포르노 배우 "사탄은 당신의 침묵에 만족"



조슈아 브룸 목사. ©Joshua Broome

성인 영화 배우 출신으로 기독교에 귀의해 목사가 된 한 남성이 현대 남성들이 신앙 안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침묵'을 꼽았다.

조슈아 브룸(Joshua Broome) 목사는 최근 '빌리와 달턴의 바이블 브러더스 팟캐스트'에 출연해 "사탄이 당신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다면 당신의 침묵으로 만족할 것"이라며 "만약 그가 사람을 침묵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그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로 큰 승리"라고 강조했다.

브룸 목사는 침묵이 남성과 문화에 있어 '치명적인 약점'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도 어떤 메시지를 전한다.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아주 크게 말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의제와 이념을 외치고 있는데 거기에 아무런 반박이 없다면, 우리는 무언가에 의해 세뇌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브룸 목사는 가정과 사회에서 남성의 역할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가정을 이끌지 않고 문화 속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자기 자신도 이끌지 못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브룸 목사는 현재 교회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남성들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도록 돕는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버지니아주 린치버그 리버티대학교 내 토마스로드침례교회에서 열린 '이그나이트 남성 임팩트 주말 행사'에도 참여했다. 약 3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이 행사는 매해 7,000여 명의 남성이 참가하는 대규모 신앙 집회로 성장했다. 행사에는 브룸 목사를 비롯해 팀 팀버레이크(Tim Timberlake), 존 고든(Jon Gordon), 레트 워커(Rhett Walker) 등 영적 지도자들의 강연이 마련됐으며, 군 참전용사 헌정 프로그램과 도끼 던지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도 함께 진행됐다. 브룸 목사는 행사의 핵심 목표에 대해 "복음을 명확하게 전하고 사람들이 건강한 지역 교회에 참여해 제자도의 여정을 시작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음란물 문제나 문화적 수동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성들에게 손을 내밀고 싶다"며 "이 행사는 남성들이 본래 돼야 할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미경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아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금요일 오후 7: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1부 07:30AM -1부 09:00AM -평일(월-금) 05:00AM  
-2부 09:15AM -2부 11:00AM -토요일 06:00AM  
-3부 11:00AM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Youth (8th - 12th) 11:00 AM  
이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양부 (24개월 이하) 11:00 AM

**장수영 담임목사**

**연합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 (KM) 오전 10:30 중,고등부 (Youth) 오전 10:30 **최현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EM) 오전 10:30 대학청년부 (College) 오전 10:30  
유년부 (K-2) 오전 10:30 중보기도 (Intercessory prayer) 오전 9:40  
초등부(3-5) 오전 10:30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jjoonm0623@gmail.com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강문수 담임목사**

**로렘나무교회**  
항상 기뻐하리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3133 Le Parc #1003, Chino hills, CA 91709  
T. (909) 519-0876

##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타주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후 12:30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후 12: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아요 내 길에 빛이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중,고등부(아기레슬) 오전11:00 **유경재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아부(베베(민물레슬))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일(금) 오후 7:30

**나성복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이정현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주일 2부 9:30AM 수요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오영찬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일(영)예배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곽덕근 담임목사**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이건창 담임목사**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화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nta Clarita,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mool.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성경회 저녁 7:45 **이충환 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토 오전 6:00  
주일 3부 영아예배 오후 1:00

www.icccla.org

**주안에 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T.(818)363-5887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박성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00

**베이크스필드 ANC은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1:00 **송금관 담임목사**  
주일 성경공부 풍요로운 삶 오전 9:30  
화요일 3:30 기도회 매일 둘째주 오전 10:30 목요일 TEE 영육 Zoom 오후 7:30  
목요일 가리전도 오전 10:00 한인타운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평강교회**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T. (213)393-9136 http://pyongkang.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강일진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0:15 (한국어, 스페리니쉬)  
주일예배 3부 오후 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임인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30 수요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30 새벽예배(바-목) 새벽 6:00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V 89147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송상용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이정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출기기도회 오후 7: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7:00 E.lvkchurch@gmail.com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장년예배 1부 오전 9: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조용철 담임목사**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회 수요일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금요일 오후 7:00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임명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예배 7:00 PM  
새벽기도회 화-토 5:50 AM

**라스베가스 우리종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woorijoeunchurch.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9시 세신자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 **김광석 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오전 10:45 제자훈련 주일 오후 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금요일예배 저녁 7시  
Youth 오전 10:45, 오후 1시 새벽예배 오전 6시(화-금)

**라운드락교회**

2011 Cade Lk, Round Rock, TX 78664  
T.(512)228-1934 https://www.rkpc.net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크리스천 비즈니스

#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nwood Ave. Los Angeles, CA 90008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꼬리뼈 통증 출혈로 앓기도 두렵고 매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초강력 정력제 \$70**

3대째 가업 **영선한의원 213.380.7800**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고기, 김치만두, 찹쌀 모방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OP FOP SERVICE, INC. PLUMBING** License# 1139798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40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 PCA 한인 서남노회 제85회 정기노회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PCA) 소속 한인 서남노회 제85회 정기노회가 3월 10일 오전 10시 Living Faith Presbyterian Church에서 열렸다.



PCA 한인 서남노회 제85회 정기노회가 10일 오전 10시 Living Faith Presbyterian Church에서 열렸다.

현재 노회장은 김상선 목사이며, 노회원은 약 80여 명의 목사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인 서남노회는 PCA 내에서도 비교적 큰 규모의 노회에 속한다. 특히 노회 산하에 영어권 교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영어권 교회 가운데 당회가 구성된 조 직교회도 이미 3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노회 소속 목회자들 가운데는 미군 군목으로 사역하는 이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날 노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김상선 목사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디모데전서 6장 11절)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목회자의 정체성과 소명에 대해 강조하며 “목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며, 그 부르심 자체에 깊은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많은 목회자들의 자기소개를 보면 학력과 직함, 각종 경력들이 길게 나열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목회자의 정체성은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닌 목사라는 사실에 있다”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목사라면 그 직분 자체에 무한한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민 목회 현실의 어려움을 말하며, “이민 교회 목회

현장은 결코 쉽지 않다.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자립하기 어렵고 목회 환경도 힘든 것이 사실이다”라며 “그러나 목회의 성공과 실패는 이 땅에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 앞에서 판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목회를 실패했다고 단정하는 순간 이미 마음에서 무너지는 것”이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시는 음성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이어 PCA 교단의 역사와 유산도 말하며, “미국 장로교는 복장로교와 남장로교가 있었고, 이 두 교단이 한국에 복음을 전한 장로교의 뿌리”라며 “1973년 남장로교에서 개혁 신학을 지키기 위해 PCA가 분리될 당시 많은 목회자들이 은퇴 연금과 각종 혜택을 포기하고 교단을 떠났다.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평생 받을 연금까지 내려놓았으며, 법

적 소송도 하지 않고 떠났다. 이러한 헌신과 희생이 오늘날 PCA의 정체성을 세웠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한국 교회와 사회에 남긴 PCA의 선교적 유산을 소개하며, “일제시대 조선에서 헌신했던 선교사들과 교육, 의료, 구제 사역 등 많은 선교 활동이 남장로교를 통해 이루어졌고 이는 오늘날 PCA의 중요한 유산”이라며 “이러한 역사와 전통을 아는 것은 PCA 목회자로서 큰 자부심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신다”며 “목사라는 직분에 대한 영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목회자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한인 서남노회는 매 노회마다 한어권과 영어권 목회자들이 지속적으로 목사 안수를 받으며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마스 맹 기자**

→ 4면 기사 <감사한인교회>에 이어서

이어서 다음 구절의 상황을 “주님 말씀 듣고 갔다가 봉변당했다”고 표현했다.

“예수님 말씀 듣고 배를 타러 갔는데 건너가는데 물결로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는 장면이다. 주님 말씀 듣고 갔다가 봉변당했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면서 크리스천들 안에 두 개의 마음-‘감사’와 ‘섬섭함’이 존재하며, 이 간극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영성,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기독교인의 마음속에는 두 개의 문장이 존재해요. 거듭난 사람에게 두 개의 문장이 있다. 하나는,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문장은 ‘하나님 섬섭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해결되지 않는 섬섭함이 있다. 감사와 섬섭함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 그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영성이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찌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 하리라.”

“이것이 영성이다.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의 기도를 통과해야 거기 도달하는 것이다. 힘들 때 엎드려 주를 부르시면 된다. 저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믿는다. 내가 어떤 병에 걸릴 지라도,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이다.”

그는 “예수님 말씀 듣고 가서 봉변당했다”며,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면, 이 고난에는 이유가 있어

야 한다”며 이 사건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나눴다.

“제자들이 찢찢매고 있는데 주님이 등장하신다. 주님은 고난의 자리에 그 정확한 시간에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이다. 우리가 힘들어서 기도 소리도 안나오면, 주님이 우리에게 신방을 오신다. 이민생활을 사는 여정 동안 내 인생이 힘들었을 때 마다 혼자 있었던 게 아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신방오셨기에, 나를 불들어 일으켜 주셨기에 우리가 살아 있는 것이다.”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으신 이가 우리 주님이시다.(요한계시록 10:1-2) 우리가 당하는 풍랑을 주님이 통치하고 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오르시면, 우리는 어디도 건너가게 된다.”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 전기세 50~90% 절감 \***

**무료 설치 서비스**  
전기차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 해드립니다.

**백업용 배터리**  
정전에도 끄떡없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의 **원가에 제공**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풀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www.btssolardesign.com](http://www.btssolardesign.com)



SCAN ME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텍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6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213.500.8000**  
LA 2621 W. Olympic Blvd, #205 Los Angeles, CA 90006

**213.798.22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강준민 칼럼

말꽃 | Word Blossoms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심느냐에 따라 그 열매가 달라집니다. 좋은 말을 심으면 향기로운 꽃이 피어나고, 거친 말을 심으면 가시가 돋아납니다.

최근 김재원 아나운서가 쓴 『말꽃』을 읽었습니다. 저자는 KBS에서 30년 넘게 ‘말’과 더불어 살아온 방송인이자 에세이 작가이며, 지금은 한세대학교 교수로 섬기고 있습니다.

『말꽃』은 말을 잘하는 기술을 넘어, 말이 사람의 마음에 남기는 흔적을 깊이 성찰하게 하는 책입니다. 쉽지만 깊고, 진솔하면서도 울림이 있는 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책은 말이 어떻게 꽃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인문 에세이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말이 꽃이 될 수 있을까요? 책이 전해주는 몇 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말을 할 때는 씨앗을 심듯이 말해야 합니다. 말은 공기 중에 흩어지지않고, 마음에는 뿌리를 내립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공기로 흩어집니다. 손으로는 잡을 수 없는 말이 마음에는 자리를 잡습니다.

어느 마음에서는 말꽃으로 피고, 어느 마음에서는 말뚱으로 박힙니다. 내 말이 당신의 마음에서 꽃으로 피어나기를 오늘도 조용히 바랍니다.”(김재원, 『말꽃』, 달먹는 토끼, 29쪽).

한 마디의 말이 누군가의 가슴에서 꽃이 될 수도 있고, 깊은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심는 말이 누군가의 내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할 때마다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말해야 합니다. 내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서 꽃으로 피어나기를 조용히 기도하며 말해야 합니다.

둘째, 말을 할 때는 정원을 가꾸듯이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스티븐 코비는 “정원사가 없는 정원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돌보지 않는 정원은 잡초가 무성해집니다. 아름다운 정원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정성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말을 심고 가꾸느냐에 따라 인생의 풍경이 달라집니다. 날마다 좋은 말을 심고, 쓴 뿌리와 같은 생각은 뽑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은 잡초 하나가 정원 전체를 황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말을 할 때는 숙고(熟考)하면서 말해야 합니다. 숙고(熟考)는 ‘익을 숙(熟)’과 ‘생각할 고(考)’의 합성어입니다. 충분히 익은 말은 향기를 품습니다. 그러나 덜 익은 말은 상처를 남깁니다. 숙고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을 들었을 때도 즉각 반응하지 않고 잠시 침묵합니다. 그 짧은 침묵이 관계

를 지켜 줍니다. 야고보는 권면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약 1:19).

말은 관계를 맺는 행위입니다. 말을 다리를 놓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관계를 세우기도 하고 허물기도 합니다. 짧은 순간의 반응이 평생의 관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익은 말, 향기로운 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말을 할 때는 말의 능력을 기억하며 말해야 합니다.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히 11:3).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우리 역시 말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내뿜은 한마디는 누군가에게 평강의 집이 될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자신이 한 말속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잠 18:21). 예수님께서 간음 현장에서 불잡힌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요 8:11). 예수님은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의 언어는 단지 옳은 말을 넘어서 사람을 세우고, 치유하고, 빛을 비추는 말입니다. 복음의 말은 소망을 심는 말입니다.

다섯째, 말을 할 때는 품격(品格) 있게 말해야 합니다. 품격(品格)은 물건의 등급과 격식의 합성어입니다. 품격이 사람에게 쓰일 때는 사람의 됬됨이에서 느끼는 풍모(風貌)를 의미합니다. 품모란 한 사람의 삶과

내면에서 배어 나오는 전체적인 형상을 의미합니다. 품격(品格)의 ‘품(品)’ 자에는 ‘입구(口)’가 세 번 들어 있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그 사람이 하는 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리 외모가 출중해도 그 사람이 쓰는 말이 거칠고 천박하면 품격이 떨어집니다. 자신의 품격을 스스로 아름답게 만드는 길은 아름다운 언어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됬됨이는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에 의해 결정됩니다. 언품이 곧 인품이며, 언품이 곧 품격입니다.

품격의 핵심은 절제에 있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너무 지나친 치장을 삼갈 줄 압니다. 적절한 옷에 적절한 액세서리를 할 줄 압니다. 또한 말을 할 때도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하지 않습니다. 절제된 언어를 사용합니다. 적절한 때, 적절한 장소에서 적합한 말을 할 줄 압니다(잠 25:11). 말을 하는 중에 잠시 침묵할 줄 압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상대방의 말을 잘라가며 자기주장을 억지로 주입시키지 않습니다.

저는 『말꽃』이 많은 분들에게 읽혀, 우리의 언품과 인품이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말이 너무 거칠어졌습니다. 말꽃이 아니라 말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복음의 언어를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목회자와 선교사와 지도자들이 향기로운 말을 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을 심는 사람이 많아질 때,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따뜻해지며 세상이 밝아질 것입니다. 복음의 언어를 심어, 향기로운 말꽃이 이 땅에 가득 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진유철 칼럼

하나님 일하심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는 “회개하라 천국(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heaven)이 가까웠느니라”(마4:17)였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일을 위해서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은 일을 하기 위해

먼저 방법과 제도를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먼저 사람을 찾기 위해서 갈릴리 바닷가를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그물 낚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르신 사람은 배경이나 학벌 등 외적인 조건과는 상관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함께 일하는 형제를 부르신 것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등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화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마4:19)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 뛰어나고 완벽한 사람이라서가 아니

라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완벽해야 쓰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그런 사람을 찾았다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굳이 자격이 있다면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삶에서 머뭇머뭇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푸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진형 교수는 한국 여성 최초로 스텐포드 대학의 종교교수가 되었는데, 자기 실력보다 시험을 잘 보는 이유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교수는 어떤 과목을 공부하게 되면 먼저 문제집부터 풀다고 합니다. 비록 잘 몰라서 많이 틀리긴 하지만 문제를 풀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반복되는 내용은 무엇인지, 어떤 것을 꼭 알아야 할 것

인지 전체적인 흐름이나 중요성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먼저 인생의 문제를 푸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지금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어렵고 힘든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나 자녀의 문제, 건강이나 물질의 문제, 관계나 이민생활과 신앙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성실하게 한 걸음씩 전진하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체험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도 사람을 찾으셔서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문제들은 오히려 축복의 기회였다고 간증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살롬!

# 생명을 살리는 텔로유스

## 퇴행에서 재생으로! 노화에서 역노화로!

**주요 라디오 · 신문이 주목한 텔로유스(TeloYouth) 젊음회복 프로그램**  
LA 라디오코리아, 라디오서울, 우리방송, CBS 기독교TV, NY 라디오코리아, NY K라디오, 아틀란타 라디오코리아 등 주요 방송사와 중앙일보, 한국일보, 뉴욕일보, 타운뉴스, 교차로, 밸리뉴스 등 주요 신문사가 주목하고 있는 차세대 젊음 회복 기술, 텔로유스를 소개합니다.



### 이런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 120세까지 건강하고 젊게 사시고 싶은 분들
- 역노화 (Reverse aging) 기술력으로 10년이상 젊어지고 싶은 분들
- 밤에 자주 깨고 다시 잠들기 힘들/ 기운 없고 늘 피곤함
- 각종 염증으로 늘 고생함/ 스트레스를 못 이겨냄/ 의욕이 없고 우울함
- 장 트러블/ 소화력이 떨어짐/ 눈이 건조하고 침침함
-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짐/ 혈당조절이 힘들/ 통증에 시달림
- 몸의 여러 구조와 기능들이 만성적으로 고장나 고민하고 계신분들

퀀텀 젊음회복 6개월 프로그램 패키지 \$2,478

**무료 증정** 프로모션 \$2,478 패키지 구매시 텔로유스 파우더 한병(\$300)

### 건강의 '마스터 키', 줄기세포

텔로유스는 우리 몸의 골수에서 줄기세포 배출을 최대 3,600%까지 유도하는 10년 이상 앞서간 세포신호(Cell Signaling) 기반의 최첨단 생명공학 기술로, 몸 전체의 구조적 균형, 기능적 회복, 그리고 감정적 체계까지 근본적으로 되살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회복 프로그램입니다.

**텔로유스의 핵심 특징**  
10년 이상 앞서간 최첨단 생명공학 세포신호 기술  
골수에서 줄기세포 배출 최대 3,600% 유도  
온몸의 구조 · 기능 · 감정 체계까지 재생 & 회복

**줄기세포 건강사업 코치 모집**  
21세기 세포신호 기술 기반 젊음회복 프로그램  
■ 세포신호 기술력 독점, 재구매율 91%  
■ 코치 교육 시스템 제공  
■ 월 \$10,000 이상 수입 가능

문의: 레이첼 건강 수석 코치  
**714-851-8035**

www.TeloHealing.com

HYUNDAI  
**GETAWAY**  
SALES EVENT

**PH**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Happy*  
*St. Patrick's*  
*Day*

# 새봄맞이 세일즈 이벤트



**NEW 2026 HYUNDAI**  
**Palisade**  
Calligraphy



**NEW 2026 HYUNDAI**  
**Elantra**  
Hybrid

# 0%

APR Financing  
(차종에 따라서)

60개월까지 할부 가능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90 days first payment (첫 90일간 납부 유예)



**NEW 2026 HYUNDAI**  
**Ioniq 9**  
Limited



**NEW 2026 HYUNDAI**  
**Santa Fe**  
Calligraphy



**NEW 2026 HYUNDAI**  
**Ioniq 5**  
Limited RWD

함께 일할 세일즈맨 구합니다!

한인 메카닉 서비스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Frank Kim 323.823.0682



Sean Kim 213.605.2886 Jae Lee 714.319.4611



**HYUNDAI**  
**1-888-644-7114**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새라 김 칼럼

지금은 기도할 때: 태아 생명 보호 법안 공청회



새라 김 대표 TVNEXT.org



목적: 부모의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현행 제보다 더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신생아를 맡길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발생해 온 영아 유기 사태를 예방합니다.

캘리포니아의 크리스천들과 교회들이 기도하며 주목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 발의안이 3월 말과 4월 중 공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현재, 캘리포니아 주의원들은 주 정부의 '안전한 양육권 이양(Safe Surrender)' 관련 법안을 강화하기 위해 하원 법안 AB2073과 AB1628을 추진 중입니다.

저희 TVNEXT(다음세대 가치관 정립 및 보호) 단체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가족연맹, 학부모연맹, 기독교변호사연맹 등 여러 단체들이 힘을 모아 이 두 가지 발의안이 통과될 수 있

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3/16)에는 새크라멘토에서 March for Life 행사를 상황리에 마치고, 여러 단체 대표들이 직접 의원들과 만나 두 발의안에 찬성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 1. AB2073: Child Protection: Safe Surrender (아동 보호: 안전한 양도)
2. AB1628: 영아 위험 방지법 (Keeping Infants from Danger Act, KID Act)

한국에서 시작된 베이비박스(baby box, '아기 상자') 개념을 반영하여, 'Safe Haven(안전한 피난처)'과 같은 취지의 안전한 보호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입니다.

AB1628은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미셸 로드리게스(Michelle Rodriguez)가 발의한 법안으로, 아동 교육법 제51934조, 보건안전법

법 시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주 정부가 지방 기관에 상환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익명으로 진행되며, 의료 검진이 제공됩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주는 영아 유기 사건 증가에 대응하여 2001년 '안전 인계법'을 제정하였으며, 이후 총 1,424명의 영아가 안전하게 보호되었습니다.

목동칼럼 (12)

무슨 뜻이 있겠지..?



신 병욱 목사 미라클LA교회 비전 50 선교회

Project' 미션으로 이번에는 인도 콜카타에서 250명의 현지 목회자들을 섬기고 돌아왔다. 자비량 원칙으로 선교하는 목회자로서 항상 가장 저렴한 비행편을 찾는다.

이제 귀국 여정은 콜카타 - 텔아비브 - 아테네로 이동한 후, 이미 왕복으로 예약해 둔 아테네 - 런던 - LA 항공편을 이용하는 계획이었다. 드디어 모든 사역을 마치고 토요일 밤, 귀국을 위해 콜카타 공항에 도착했다.

가는 저가 항공편을 예약하였다. 역시 저가 항공편답게 출발 시간은 새벽 2시 30분이었다. 그렇게 긴장된 시간이 흐르고 밤이 찾아왔다.

그렇게 서쪽 하늘이 막힌 답답한 상황 속에서 뜻밖의 항공편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인천을 거쳐 LA로 돌아가는 항공편이었다.

하는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것은, 감히 부자가 아닌 목회자로서 상상도 하지 못했던 세계일주를 짧은 시간 안에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난다. 그 순간에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다.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찾아오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기도 한다.

최근 이란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전쟁은 비참한 것이기에 가장 좋은 일은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사는 것이다. 그러나 전쟁은 인류 역사 속에서 언제든 벌어지는, 부인할 수 없는 실재적 현상이다.

2026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ncludes logos and details for Talbot School of Theology,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Grace Mission University, Azusa Pacific Universit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and ITS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 KINGDOM ENTREPRENEUR

## 바이오텍 비즈니스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다

## 텔로유스 바이오텍 B.A.M

## Business As Mission 성공사례 발표

AI와 로봇이 인간의 지성과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 세상은 지금 묻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 ✓ 비즈니스는 사명입니다!
- ✓ 사명은 영향력입니다!
- ✓ 영향력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텔로유스 바이오텍은 단순한 제품이나 수익을 넘어, 세포 신호 소통(Cell Signaling) 기술을 기반으로 생명을 회복시키고 사람과 공동체를 살리는 '킹덤 비즈니스(B.A.M)'의 실제적 모델을 실현해 왔습니다.

## 지금, 하나님 나라의 기업가로 부르심 받은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이론이 아닌 검증된 **성공사례**를 통해

- 비즈니스가 어떻게 선교가 되는가?
- 신앙과 기업이 분리되지 않는 실제 구조
- 생명 회복 기술이 만들어내는 사회적·영적 영향력
- 차세대 Kingdom Entrepreneur를 위한 비전과 기회를 실제 사례와 간증 중심으로 공유합니다.

- 일 시 : 2026년 **3월 28일** (토) 오후 2:30
- 장 소 : 텔로유스 본사 (6820 Orangethorpe Ave, Suite G, Buena Park, CA 90620)
- 초청 대상 : Business as Mission 에 관심있는 모든 분과 차세대 창업가
- 신청 마감 : 3월 25일(수) 마감
- 신청 : 폴 김 714-732-8477 (문자 혹은 전화 신청)  
Joshua Kim 718-290-4739 (차세대 영어권 담당)



폴 김  
젊음 회복 프로그램 수석코치  
텔로 바이오텍 뱀 디렉터



Dr. Chris Morris  
세포 신호 폼물레이터



Dr. Tina Johnson  
세포 신호 폼물레이터

## 세포 신호 세미나

-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45분
- 장소 : 6820 Orangethorpe Ave #G  
Buena Park, CA 90620
- 예약 필수 : 폴 김 (TeloYouth수석코치)  
714-732-8477

## 자문위원

김재종 박사 : 신경과 의사/사우스베일로 한의학대학 교수, 현 라구나우즈 감리교회 장로  
양성전 목사 : 대한민국 국회조찬기도회 지도위원, GMS 동남부아프리카 선교사, 강영우 박사 장학회 사무총장  
필립박 목사 : 국제 나사렛교단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선교사, 뉴욕뉴저지 아시안 아메리칸 미니스트리 감독, 현 Awakening Souls Ministries Inc. 대표  
미미송 박사 : Reprogreen Homecoming Ministry 대표, GLDI 공동창설자, IPP 국제선정의원, 민족교류협 미주회장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콘텐츠 중독 시대, 교회는 무엇을 잃었는가?

# 넷플릭스 등 미디어 플랫폼, 신앙 언어와 세계관 바뀌



넷플릭스가 삼켜 버린 기독교

홍광수 | 세움북스  
272쪽 | 16,500원

넷플릭스와 OTT 플랫폼이  
일상을 점령한 콘텐츠  
과잉 시대

교회는 무엇을 잃었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넷플릭스가 삼켜  
버린 기독교」는  
스마트폰에 잠식되어  
사유(思惟) 능력을 상실하고,  
세상의 조롱과 왜곡 속에  
무력해진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을 통렬히  
진단한다

『넷플릭스가 삼켜 버린 기독교』는 디지털 미디어가 신앙과 교회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면서, 단순히 현상을 진단하는데 그치지 않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신학적·실천적 태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저자는 미디어 환경이 단순히 외 부적 위험이 아니라, 교회 내부의 신앙 구조와 공동체의 상상력, 그리고 복음의 전달 방식까지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을 강조한다.

특히 넷플릭스와 같은 OTT 플랫폼이 제공하는 콘텐츠가 신자들의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면서, 신앙의 언어와 세계관을 점진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그는 “디지털 미디어는 이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프레임이 되었으며, 교회와 신앙의 언어도 그 영향력 아래서 재구성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책의 장점 중 하나는, 저자가 미디어 환경의 문제점을 단순히 도덕적 타락이나 세속화의 결과로만 환원하지 않고, 신학적이고 문화적 관점에서 분석한다는 점이다.

저자는 미디어가 기독교 신앙을 왜곡하고 조롱하는 현상이 단순히 외부의 적대감 때문만이 아니라, 교회 내부의 상상력 빈곤과 해석 공동체로서의 역할 상실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한다.

그는 “교회가 더 이상 사회적 상상력의 중심이 아니며, 신자들 역시 미디어가 제공하는 세계관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소비자로 전락했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진단은 개혁주의가 강조하는 전 피조 세계의 주권과 문화 변혁의 소명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책에서 저자가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문제점은 미디어가 단순한 정보 전달 수단을 넘어, 인간의 정체성과 가치관, 그리고 진리에 대한 이해까지 재구성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와 영화 속에서 기독교 신앙은 종종 낡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혹은

위선적이고 배타적인 집단으로 묘사된다.

저자는 “이러한 묘사가 반복될수록 신자들조차 복음의 본질을 잊고, 세상의 시선에 맞춰 신앙을 변형시키려는 유혹에 빠진다”고 경고한다. 그는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상식이 교회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쳐, 예배와 공동체 생활, 심지어 성경 해석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체적 사례와 함께 설명한다.

책의 또 다른 강점은 실천적 대안 제시에 있다. 저자는 단순히 미디어를 비판하거나 배척하는 태도를 넘어서, 교회와 신자들이 미디어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복음적 상상력과 창의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그는 “교회는 해석적 공동체로서, 다양한 이야기와 질문, 상상이 허용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각 장마다 소그룹 토론거리, 미디어 콘텐츠 분석, 그리고 AI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복음적 미디어 전략 등을 제시한다. 저자는 “그리스도인은 미디어의 소비자에 머물 것이 아니라, 비판적 해석자이자 창의적 생산자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회가 미디어를 복음 전파의 새로운 언어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한다.

반면, 책의 한계도 지적할 수 있다. 미디어 환경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교회의 무기력함에 대한 진단은 설득력이 있지만, 미디어의 긍정적 가능성이나 다양한 신학 전통과의 대화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또 OTT 콘텐츠에 대한 분석이 다소 단편적이거나 특정 사례에 집중돼 있어, 보다 폭넓은 미디어 환경에 대한 통합적 접근은 아쉬울 수 있다. 독자에 따라서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한 신학적 논의가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전개됐으면 하는 바람이 남을 것이다.

그럼에도 저자가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미디어 환경의 변화 앞에서 단순한 소비자나 방관자가 아니라 비판적



▲김은숙 작가의 '더 글로리' 중 교회에서 목사 딸 이사라와 대화하는 문동은. © 넷플릭스

분별력과 복음적 상상력을 갖춘 문화 변혁자로 설 것을 촉구하는 데 있다. 저자는 “교회가 상상력을 잃어버렸고, 그리스도인들은 문화의 소비자로서만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해석적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리고 미디어를 복음 전파의 새로운 언어로 삼으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책은 성경 중심의 분별력, 문화 변혁자로서의 교회 정체성, 그리고 비판과 창조 의 균형을 실천적으로 요청한다. 저자는 모든 영역에서의 주권이라는 개혁주의 신학의 원리를 미디어 환경에 적용하며,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면한다.

결국 『넷플릭스가 삼켜 버린 기

독교』는 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신앙 공동체가 직면한 도전 앞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복음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실천적이고 통찰력 있는 안내서다.

이 책은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신앙의 본질을 지키고자 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의 사명을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성찰과 실제적 지침을 제공한다.

저자의 분석과 제안은 단순한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 교회가 실제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독자뿐 아니라 모든 신앙 공동체에 유익한 통찰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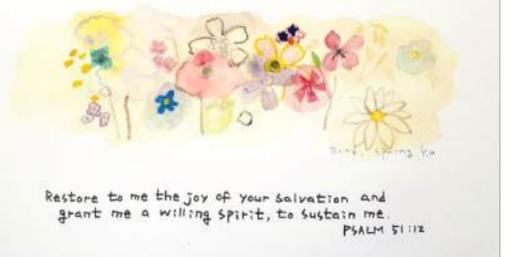
서상진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불드소서

시편 51:12



용수산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집안의 대를 이어 나가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할머니 손 맛 그대로!  
48시간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 맛!  
최고급 고기만을 엄선!

송영 특크 설렁탕

단체주문 환영

T.(213)277-1339

2717 W Olympic Blvd. #108 LA, CA 90006(구) 베버리순두부 자리

2025학년도 가을학기

##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9월 22일 ~ 12월 5일까지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사과정(B.Th)

목회학석사과정(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439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20



DAVID'S TENT  
다윗의 장막

REPENTANCE · RESTORATION · REVIVAL

# 다윗의 장막

— DAVID'S TENT —

70 HOURS NON-STOP  
PRAYER & WORSHIP

JOIN US

## 70시간 연속 기도회

Pepperdine University  
Malibu, California

7월 27일(월)~ 7월 30일(목)  
July 27(Mon)-July 30(Thu)

✉ 70pray@gmail.com ☎ 626-810-3455 🌐 www.70pray.com



등록 QR CODE  
70Hour Prayer

[함께하는 기관] 미주복음방송 | CABC | 굿네이버스 | 한국침례교해외선교회(FMB회장: 주민호 목사) | SEED 선교회  
WMU(남종성 교수) | CCC(박종술 목사) | NextGen English Ministry(손경일 목사) | 기독교일보  
모퉁이들선교회 | 미주성결신학교 | Kalam Mission | 뉴욕모자이크교회 | 토렌스조은교회 | 아름다운교회  
더크로스교회 | 오렌지가나안교회 | 남가주사랑의교회(이준영 목사) | 세계등대교회 | 윈더풀커뮤니티교회

# “설교 준비의 기쁨, ‘똑똑한 부목사’ 시에 빼앗겨서야...”

**AI 설교문? 결국 설교자 책임 AI 설교문 낭독, 설교 맞는가 AI, 자료 조사·분석 등에 유익 설교 준비 도와 시간 단축 AI, 똑똑한 부목사 삼으면 돼 본문 씨름 시간 소중히 해야**

『성경으로 설교하기』 발간 기념 ‘설교자를 위한 마스터클래스’가 3월 16일 오후 서울 동작구 총신대학교 종합관 주기철기념홀에서 개최됐다.

신간 『성경으로 설교하기』는 ‘인약신학 관점에서 본 8단계 구약 주해의 이론과 실제’라는 부제처럼, 총신대 구약학 김희석 교수가 지난 15년간 강의 현장에서 검증된 주해 훈련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날 클래스에는 100여 명의 신학생 및 목회자들이 사전 신청해 참석했다.

김희석 교수가 제시하는 8단계 구약 해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해석 이전 과정으로 1단계 본문 확정과 개인 번역, 2단계 역사적 정황 연구, 3단계 단어 연구, 4단계 장르 연구, 해석 과정으로 5단계 문학적 정황 연구와 6단계 정경적 정황 연구, 본문 해석 확장 과정으로 7단계 신학과 메시지, 8단계 적용 포인트 및 개요 작성 등이다.

특히 5단계 문학적 정황 연구 중 ‘주제 흐름 분석’과 6단계 ‘정경적 정황 연구’ 중 ‘정경 흐름 분석’은 김 교수가 다년간 학생들이 제출한 주해 보고서를 검토한 끝에 새롭게 창안한 부분으로, 여러 주해 결과들을 묶어내 통전적으로 이해한 뒤 살아 있는 방식으로 청중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부록에는 ‘AI 활용 가능성에 대한 제언과 한계도 담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저자 김희석 교수(총신대)가 먼저 ‘가장 어두운 시편’으로 불리는 시편 88편 주해를 시연한 후 패널 토의를 진행했다. 패널로는 저자 김희석 교수와 진행을 맡은 이정규 목사(시광교회), 그리고 일선 목회자인 조영민 목사(나눔교회), AI 및 교육 전문가 김수환 교수(총신대 기독교교육과), AI 이전 성경연구 소프트웨어 로고스



▲초반 마스터클래스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바이블 전문가인 김한원 목사(하늘샘교회) 등이 참여했다.

토의에서는 설교자들에게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AI 관련 내용이 주로 논의됐다. AI를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AI 설교문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설교인지 등 근본 문제들도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AI가 설교 준비에 도움을 주는 ‘도구’임이 분명하지만, 결국 설교는 설교자의 ‘책임’임을 분명히 했다. AI로 절약한 시간을 기도와 묵회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긍정론도 있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설교 준비의 기쁨’을 AI에 빼앗기지 말자는 권면도 나왔다.

김한원 목사는 “설교 준비 과정에서 AI와 성경 프로그램이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성경 전체에서 ‘헤세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를 로고스바이블로 전수조사한 다음,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AI에 의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검색에 찾는 시간과 노력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일한 평신도인 김수환 교수는 “오늘 김희석 교수님이 시편 88편 주해를 보여주셨는데, 관련 설교 50-100편을 AI에 입력한 뒤 기존 스타일을 참고해 설교 초안을 만들라고 시킬 수 있다”며 “실제로 해봤더니, AI가 오히려 ‘왜 로마서 15장 8-9절은 관련 구절로 넣지 않았느냐’고 지적하더라”고 소개했다.

김수환 교수는 “일반 교육계에서는 AI를 통해 본질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고 한다. 교사의 행정업

무를 AI에게 대신 시켜서 자동화할 이룰 수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교사들이 남는 시간에 아이들을 위해 더 노력하는가 하는 것”이라며 “설교자도 마찬가지다. AI에게 기본 자료 준비와 검토 등을 맡긴다면, 남는 시간에 목회자들이 설교 전달력 향상과 기도 등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는가? 그랬다면 AI를 유익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이 설교의 본질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희석 교수는 “AI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본문과 씨름하는 시간을 버리지 않으면 좋겠다”며 “여기서 은혜도 목상도 나오는 것이다. 결과값만 갖고 설교하려 한다면, 은혜 없이 은혜를 만들어내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한원 목사는 AI 활용 중 태도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교만과 함께 거저 먹으려는 태도를 지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I를 ‘똑똑한 부목사’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AI가 우리보다 똑똑할 수는 있지만, 교수나 담임 목사는 아니”라며 “필요한 질문을 던지고 틀린 답은 지적하며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계도 지적됐다. 김한원 목사는 “AI가 학술 자료나 원어 해석에 대해 공통적으로 틀리는 경우도 있다”며 “저작권 제한이나 데이터 한계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김수환 교수는 도발적 화두를 계속 꺼냈다. 그는 “1시간 분량의 설교문을 AI로 중·고생 대상 20분 분량으로 바꿨다고 해보자. 이 설교

문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애매하지만, 근본적 문제”라며 “저작권이 AI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 변환된 설교문을 사용해도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교수는 “우리 인간 설교자에게 아까 말씀드린 1시간 설교문을 중·고생 대상 20분으로 변환시킬 능력은 언제 생기는가? 강도사 인허? 목사 안수? 5년차? 이러한 평가 기준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한원 목사는 “설교 준비에 AI를 사용하더라도, 최종 책임은 설교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AI가 주는 결론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할루시네이션(AI가 허위 정보를 사실처럼 만들어내는 현상)이 생겼는데 그대로 설교했다면, 확인하지 않은 설교자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조영민 목사는 “예전과 달리 AI와 각종 프로그램 등이 많아졌지만, 목회자들이 교수님 책에 나온 주해의 기본 단계는 갖춰야 한다”며 “AI 설교문과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작업은 전혀 다르다. 연구하고 묵상하고 깨달은 진리가 이만큼 있다 해도, 실제로 강단에서 청중에게 전해야 할 내용은 이것이 전부 아니고 시간적 제약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 목사는 “풍성한 연구 가운데 성도들에게 전할 내용들을 다시 선정하는 작업과 함께, 내가 설교를 전하는 청중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설교문을 작성할지 기획도 있어야 한다”며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만큼, 실제로 설교를 준비하는 이러한 구체적인 고민들이 필요하다. 이 고민은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고 조언했다.

설교 준비 과정 자체의 의미도 강조했다. 그는 “성경 본문을 찾고 책을 뒤적거리며 연구하는 과정 자체가 설교 준비의 기쁨이고, 제가 행복을 경험한 말씀을 성도들에게 나누는 것 역시 기쁨”이라며 “그래서 설교 시간이 행복한 것인데, 그 기쁨을 AI에게 빼앗겨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조 목사는 “내가 기쁘게 공부한 말씀을 전하고 싶은 대상이 있어서

좋아하는 사람에게 열심히 나누는 시간이 바로 설교”라며 “좀더 적실한 예화나 필요한 데이터를 AI에게 물어보더라도 전하고 싶은 대상에 대해 고민하고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 김수환 교수는 “설교 준비의 기쁨을 말씀하셨는데, 교육학에서도 이것이 본질이다. 결국 설교의 본질은 ‘설교자와 하나님 사이의 영적 소통’이다. 여기에 기쁨이 있고 전달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라며 “설교자들이 ‘메타인지’를 갖고, 설교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계속 반추하고 있는가? 이 과정에서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신학자나 설교자들을 양성하는 역량 모델은 있는가”고 질문했다. 이정규 목사는 “AI가 아무리 뛰어나도,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용납을 받은 자’라는 고백을 할 수는 없다.”며 “설교란 교육적 역할도 있지만, 한편으로 말씀을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전하는 증언이기도 하다. 그래서 뜻밖에도 설교자가 지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것 역시 대단히 중요한 증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환 교수는 “사실 성도들은 설교자가 삶을 통해 전하는 설교를 하는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며 “결국 AI를 쓰고 안 쓰고는 부차적 문제이고, 설교자의 삶과 말씀이 연결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김한원 목사는 “AI를 활용한다 해서 말씀을 깨닫는 기쁨을 얻을 수 없을까? 예전 분석과 주해 방법대로 충분히 연구하고 나면, 시간적으로 설교까지 가기가 너무 험난해진다”며 “AI 역시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적절히 활용하면 새로운 통찰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AI 자료를 소화하고 숙성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과정을 거쳐 내 이름으로 설교를 전할 수 있다면, 도구가 무엇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영민 목사는 “저희 교회는 목요일까지 설교 개요를 다 제출하게 한다. 이후 금토 이틀간 준비한 것으로 사람을 만나거나 묵상하고 기도하며, 제자훈련을 하면서 준비한 설교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다”며 “내가 준비한 것은 하늘의 말씀이니, 수준이 되든 안 되든 일단 들으라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이들은 충분히 고민하고 애쓰며 육화시킨 다음 강단에 올라가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대웅 기자

**학생모집** **캘리포니아 두란노대학교**  
 B.th, Th.M, M.Div, D.Min, Th.D **coafs-07-388665**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신학박사 인가 대학은 3곳**뿐입니다.  
 ■ 학교운영하실 분 \$7만불 (신학철학책 1만권 포함)  
 ■ 나성중부교회 김 호 박사 / 캘리포니아 디렉터  
**213-507-1933**

**김영길 목사의 가슴으로 읽는 성경**  
 지친영혼을 깨우는 아침 10분 처방전  
**규알코드 촬영 후 구독신청해 주세요**  
 영혼을 위한 아침 처방전(Morning Prescription)  
 [복용법] 매주 월/수/금 아침, 출근길이나 조용한 시간에 복용하세요.  
 [효능] 불안 완화, 마음의 편안, 영적 회복  
 Youtube.com / @Youngkingamsa

**문선영의 머니토크**  
**“아들이 어뉴이티는 절대 하지 말래요. 에이전트만 좋은 일래요”**

**질문** 안녕하세요 문선영씨 저는 버지니아에 살고 있는 64세 미세스 오입니다. 저희 부부 막상 은퇴를 하려니 뭐 변변하게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저희 남편은 67세인데 직장에서 401K가 있는데 아들과 딸 결혼할 때 각각 집 다운페이로 저희 남편 401K에서 조금씩 빼서 해줬습니다. 후회는 안하는데 지금 보니까 401K에 남은 돈은 18만불 밖에 안되고, 저는 IRA에 가지고 있는 돈이 10만불 정도입니다. 둘이 합쳐 28만불인데 거기에 소셜로 생활하는 것도 넉넉치 못해 이리 저리 궁리 중입니다. 여기에 차라리 이미 페이 오프 한 집을 줄여서 작은 콘도로 이사를 가고, 남은 돈 30만불 정도를 합쳐서 남편의 401K 18만불, 제 IRA 10만불 그리고 집 팔고 남은 돈 30만불을 합쳐서 58만불에서 50만불을 어뉴이티에 넣으면 어떻게 싶어 문선영씨에게 전화를 하고 상담을 하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아들이 집에 놀러와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뉴이티는 에이전트만 좋은 일 시키는 거라고 절대 하지 말라며 아들이 자기에게 맡기면 주식으로 돈 불려 주겠다고 걱정 말라고 합니다. 진짜 어뉴이티가 아들이 말한 대로 에이전트만 좋은 일 시키는 플랜인가 걱정이 되지만 그렇다고 아들을 다 믿을 수도 없고, 문선영씨의 유튜브를 정말 잘 보고 있으면서 이런 저런 공부를 참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 같이 이런 어리석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 머니토크의 재정전문가 문선영입니다.**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재정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오 선생님 안녕하세요.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일단 아드님이 말씀하시는 어뉴이티가 에이전트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와 편견에 대한 얘기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은퇴플랜에서 고정인컴을 받아 쓸 수 있는 어뉴이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85세까지만 살아도 장수했다 하는 시절이 지나고 이제는 100세까지 살까봐 무섭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이 50만불이라는 돈을 일년에 5만불씩만 꺼내 써도 10년이면 선생님들 74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0만불을 넣어 놓고 100세까지 무조건 딱딱딱 한달에 3천불씩 혹은 3천5백불씩 보장되어 매달 나오는 그런 어뉴이티 연금을 가입하시면 100세까지 쓰신다 해도 126만불에서 백오십1만5천불을 찾아 쓰는 플랜입니다. 50만불을 넣어놓고 언제부터 찾아 쓰느냐에 따라 백 2십만불에서 백 5십만불을 원금의 세배까지도 찾아 쓰는 것이 어뉴이티인데, 장수 시대에 걱정 없이 월급처럼 소셜 연금처럼 꼬박 꼬박 통장에 돈이 들어오니 돈이 줄어들지는 않을까, 부족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게 바로 연금 어뉴이티이죠. 그런데 이런 연금 어뉴이티 플랜이 에이전트에게만 좋다고 생각하는 오해와 편견은 다음 두가지 때문에 야기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첫째, 어뉴이티에서 받는 돈이 2% 4% 정도 밖에 되지 않

은 과거 어뉴이티를 생각해 보면 수익이 적으니, 내가 투자하는 것이 더 이익이 크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평균 8% 까지도 내가 받는 금액의 수익이 더 높은 어뉴이티, 요즘 얼마나 좋은 어뉴이티가 많은데 이런 어뉴이티를 찾아서 플랜을 가입하면 되는 거고요, 둘째, 내가 어뉴이티에 돈을 넣어 놨더니, 에이전트가 내 돈에서 커미션을 다 받아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런데요. 투자성 어뉴이티로 들어가게 되면 매년 에이전트가 투자에 따른 Fee를 받아 가는 경

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직접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성 어뉴이티가 아닌 주식 간접투자로 주식만 커미션을 받지만 내 돈을 한 번도 잃지 않고 Fee 같은 비용이 나가지 않는 어뉴이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내가 평생 고민 없이 100세까지 돈이 나오는 것을 보장받을 수 있고, 내가 넣은 돈에서 에이전트가 커미션 떼어 가지 않고! 어뉴이티 정말 전문가 잘 고르시면 선생님께 최고의 은퇴 플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까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문선영이었습니다.

**Sunyoung Moon**  
 Financial Professional | 재정전문가  
**626.827.9599**  
 SYMOONMONEYTALK@GMAIL.COM  
 WISECALIFORNIA 문선영의 머니토크 왕도모험문선영의머니토크

3435 Wilshire Blvd., 14FL A04, Los Angeles, CA 90010  
 6 Centerpointe Dr., Suite 737, La Palma, CA 90623

#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혼란과 불확실함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교회를 통해 세상을 향한 빛과 소망을 나타내십니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는 교회의 회복과 선교적 사명을 함께 붙들기 위해 연합기도성회와 부활절 연합 새벽예배, 그리고 이민교회의 미래를 모색하는 목회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향한 길을 열어 가시는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남가주 지역의 목회자와 성도 여러분을 이 귀한 연합의 자리로 정중히 초대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새로운 일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참여를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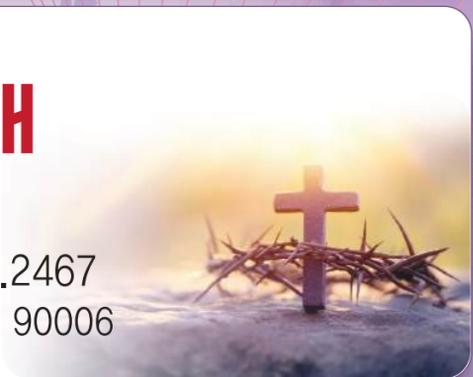
-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제56대 회장 김은목 목사 외 임원 일동

## 교회회복과 선교를 위한 3월 연합기도성회

- 2026년 3월 29일(주일) 오후 4시
- 장소 : 주님의 교회(최 훈 목사 시무) 213.700.7311  
3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

- 2026년 4월 5일(주일) 6:00am
- 장소 : 평화교회(김은목 목사 시무) 213.249.2467  
2538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 샘 라이너 목사 초청 세미나

**주제 : 미주 한인 이민교회의 진단과 미래**

- 일시 : 2026년 6월 2일(화) 오전 10시
- 강사 : Sam Rainer (Church Answers 대표)
- 문의 : 송금관 목사(평강교회 시무) 213.393.9136



샘 라이너 목사



## 제56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2538 W. Pico Bl., Los Angeles, CA 90006

회장 : 김은목 목사    수석부회장 : 김대준 목사    총무 : 최 훈 목사    사무총장 : 최영하 목사